

리아호나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일으켜 세움, 26쪽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6쪽

중독된 상태를 벗어나기, 36쪽

강해지기 위한 용기, 친4





하 리감 영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에게 재능과 고상한
취향이 있음을 세상에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움과 진정한 탁월함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하늘에
증명합니다.”

더글러스 엘 콜리스터 장로,
“우리의 고결한 하늘 가정”,
26쪽 참조.



성인

2 **제일회장단 메시지**
기도와 푸른 지평선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25 **방문 교육 메시지**
진지한 기도를 드림

8 **특집 기사**
언어 장벽 극복하기 멜리사 메릴
언어가 단합의 장벽이 될 필요는 없다.

14 **반 토론을 진행함** 롭 존스
질문을 했을 때, 반원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6 **우리의 고결한 하늘 가정**
더글러스 엘 콜리스터 장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영은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들로부터 더 쉽게 감동을 받습니다.

32 **달려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지혜의 말씀에 관한 간증

36 **중독 극복: 한 번에 한 단계씩 치유함**
리아 맥클라나한
여러분이 만약 중독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교회의
중독 극복 프로그램과 속죄를 통해 치유와 희망을 찾을 수 있다.

특집란
44 **후기 성도의 소리**
단정한 말; 온전을 멈추라는 속삭임; 20년 후에 성취된 예언;
주님께서 보살피심.

48 **이번 호 활용하기**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및 이번 호의 주제들

표지
앞: 사진 삽화: 제리 간스.
뒤: 나비의 사진 © Photospin, 배경 © Nova Development.

청소년

특집 기사
6 **너는 이미 알고 있다** 에디 다니엘 차베즈 후안카
교회가 참되다고 생각하지만 확신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16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리차드 엠 롬니
수리남의 한 청년이 변화를 일으키는 작은 방법들.

20 **20마르크 지폐**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우리가 올바르게 생활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특집란
31 **포스터: 다음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42 **질 의 응답**
"몇몇 교회 친구들은 비회원 친구들과 종교에 관해 논쟁합니다.
논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 줄은 알지만, 제가 복음에 대해
느끼는 바를 어떻게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 2008 WALTER RAYNE, MILWAUKEE, WISCONSIN

물 위를 걸으신 구주, 월터 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마태복음 14:29~31)

2009년 6월호, 제46권, 제6호
리아호나 04286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임
제일회장은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미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심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편집인: 스펜서 제이 콘디
고문: 게리 제이 코울먼, 케네스 존슨, 요시히코 기쿠찌,
더블유 더글라스 섬웨이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쉬네이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선일 편집인: 레리 힐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아담 시 율슨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보조 편집인: 수잔 배렛
편집 스태프: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라튼
라렌 포터 곤트, 캐리 캐스틴, 제니퍼 매디, 멜리사 메릴, 마이클 알 모리스,
샬리 제이 오데커크, 주디스 엘 팔러, 조슈아 제이 퍼커, 제드 이 패러스, 잔
핀보로우, 리처드 엠 홀나, 톰 엘 설, 재닛 토마스, 폴 밴덴버그, 줄리 워델
선일 비서: 로벨 튜셔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밴 캄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켈리 알 이로우, 콜레트 네베커 오운, 허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안슨, 킴
핀스타머카, 캐슬린 허워드, 에릭 피 존슨, 드니스 커버, 스코트 엠 무이, 지니
제이 낄스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자이크
배부 책임자: 랜디 제이 벤슨

통 권: 제516호, 제46권, 제6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9년 6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 동 환
편집인: 박 승 호
번역 책임자: 조 현 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역과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 침판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러시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신할라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카리비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히타이어, 헝가리어, 힌디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09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자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June 2009 Vol. 33 No. 6.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
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어린이

친2 와서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친8 특집 기사
미소를 나눔 시 제이 거드먼슨

친4 특집란
친구가 친구에게: 주님을 따르는 용기
클라우디오 디 지빅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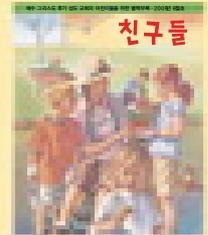
친6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성전을 지으라는 계명

친10 친구 사귀기: 가족을 도움
레나 하퍼, 돈 엘 설

친13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나는
가족이 행복해지도록 도울
수 있어요
채드 이 패레스

친14 함께 나누는 시간:
행복의 기초 쉐릴 에스플린

친16 색칠하기



친구들 표지
삽화: 달린 마쉬



이번 호에 숨겨져 있는
노르웨이어 정의만 반지를
찾아 보세요. 여러분이
의를 택하듯이, 올바른
페이지를 선택하세요!



애독자 편지

질문에 대한 해답

저는 매달 이 잡지에서 제 삶을 위한
인도와 도움을 얻고 있으며, 이 잡지가
담고 있는 내용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불광강 에이치 폴 장로님이 쓰신
“하나님의 인도하는 손길”이라는
기사(2009년 7월호)를 통해, 이 잡지가
도착하기 전 수일 동안 제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세계 이 잡지가 주님의 말씀이며,
그분의 충실한 종들을 통해 주어진다
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산드라 샌크리스토탄, 우루과이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에 관한 기사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 기사들을 읽고 기도한
후, 저는 저를 괴롭혀 왔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받았습니다. 제 가족이 겪었던
어려움들을 아이어링 회장님과 그분의
가족들도 겪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비록 세상의 논리로는 다르게 말할 수도
있으나,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흐트도르프
회장님과 그분의 가족이 견뎌낸 어려움에
대해 읽으면서 저는 더욱 겸손하게 됐고
제가 누리고 있는 축복들에 대해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루안 이자벨 페르난데스 디아스, 브라질

어려움을 극복함

2008년 7월호 리아호나에 실린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과 디미터 에프

의견이나 제언은 liahona@ldschurch.org에 주십시오.
내용은 길이 조정과 명확성을 위해 편집될 수 있습니다.



기도와 푸른 지평선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비행과 관련하여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것 중의 하나는 어둡고 비 내리는 공항을 출발하여, 한바탕 비를 뿌릴 것 같은 겨울 먹구름을 뚫고 올라가, 갑자기 어두운 안개를 헤치고 가파른 속도로 밝은 햇빛과 끝없이 펼쳐지는 파란 하늘에 도달하는 고도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이 물리적인 행동이 우리 개인의 삶과 비슷하다는 것에 놀랍니다. 무서운 먹구름과 폭풍우에 둘러싸여 이 어둠이 과연 사라질지 의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혼란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고요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들은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일상 생활의 난기류 위로 올라서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시대의 선지자의 인도로부터 얻는 지식과 이해와 인도를 통해 그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들어 올리기

비행기를 이륙시키기 위해서는, 들어 올리기를 해야 합니다. 공기 역학상, 들어 올리기는 공기가 비행기 날개 위를 지날 때 날개 아래의 압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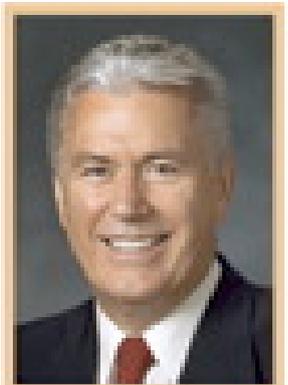
날개 위의 압력보다 커지면서 일어납니다. 위쪽으로 들어 올리는 힘이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보다 더 클 때, 비행기는 이륙하여 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우리는 영적 생활에서 들어 올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늘 쪽으로 밀어 올리는 힘이 우리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유혹과 걱정보다 더 클 때, 우리는 위로 상승하여 영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진은 들어 올리기를 낮은 위치에서 높은 위치로 가져가거나 이끄는 것; 새로운 단계나 고도로 올릴 수 있게 하는 힘 또는 원동력; 위쪽 즉, 중력 반대쪽으로 향하는 힘이라고 설명합니다.¹

시편의 저자는 훨씬 더 높은 목표들을 세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시편 25:1)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시편 12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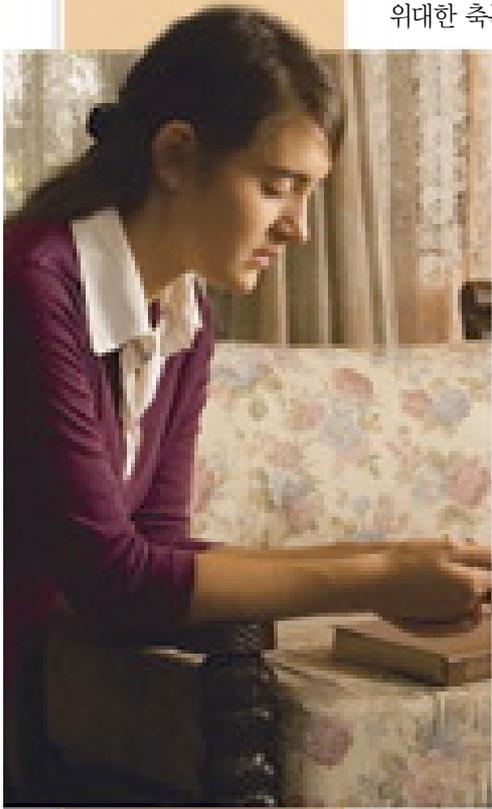
우리는 개인적인 영성을 배양함으로써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구주이신 아들과, 성신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진실로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주께서 합당하게 여겨 [우리에게 내리시는



기도는 우리가 폭풍의 시기를 넘어서도록 도와줍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경치, 곧 주님께서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근사한 축복에 대한 소망과 확신으로 가득 찬, 영광스러운 영적 지평선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우리가 영적 들어 올리기를

하도록 돕기 위해 설계된
하늘의 은사입니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상시키고 발전시킵니다.



모든 것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기를, 아이가
참으로 그 아버지에게 복종함 같이”(모사이야서
3:19) 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의로운 마음의 진실한 기도

들어 올리기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복음
원리들이 있지만, 저는 특히 한 가지 원리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기도는 들어 올리기를
제공하는 복음 원리들 중 하나입니다. 기도에는
우리를 세상의 걱정거리로부터 들어 올리는 힘,
곧 절망과 어둠의 구름을 뚫고서 밝고 청명한
지평선으로 들어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진 가장
위대한 축복과 특권과 기회 중 하나는 우리가
그분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삶의 경험, 시련,
축복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간청할 수
있으며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었다는
확신과, 그분께서는 사랑이 많고
현명하신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장 너머로 상달되는 기도는
진심 어린 기도이며, 진부한
반복이나 생각 없이 늘어놓는 말이
들어 있지 않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부터 샘솟는 것이어야
합니다.

신앙으로 드리는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기도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그때야말로 신앙을 행사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니파이는 이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는 [하나님의] 영에게 귀

기울일진대,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것임이라. 이는 악한 영은 ... 사람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가르침이니라.”(니파이후서
32:8)

해롤드 비 리 회장님(1899~1979)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는 그 어떤 사람에게라도 그가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힘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줍니다.”²

기도는 응답됩니까? 저는 응답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하늘 왕국에서 오는 신성한 도움과
지혜와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저는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간증드립니다.

순종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장합니다. 신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요한1서
3:22)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옵니다.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을 지체하실 때, 때때로 우리는 당혹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그분이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그분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완벽한 시간에 완벽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이
즉각적으로 오기도 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1831년 커틀랜드에서 받은 계시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것을 배웠습니다. “영으로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하나니, 그런즉 그가
간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느니라.”(교리와 성약
46:30; 강조 추가)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새로운 경치

기도는 우리가 영적 들어 올리기를 하도록 돕기 위해 설계된 하늘의 은사입니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상시키고 발전시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우주의 지혜와 동정심의 절대 근원이신 분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매일 드리는 단순하고 진지하며 힘있는 기도는 우리의 삶을 더 높은 영적 고도로 들어 올립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필요한 것을 간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깊은 헌신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영적 행위를 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영감과 계시와 의로움을 부여받게 되며, 그것들은 우리의 삶에 하늘의 밝은 빛을 가져옵니다.

저는 비행기 조종사 시절에 짙은 구름과 무서운 뇌우가 모든 것을 어둡고 음침하게 만들었던 때를 회상해 봅니다. 지상에서 관측하기로는 모든 것이 무척 황량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구름 위에서 태양이 마치 파란 하늘 바다 속에 있는 눈부신 보석처럼 밝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이론이나 믿음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기 역학상의 들어 올리기가 우리를 세상의 외적 폭풍우 위로 옮겨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영적 들어 올리기의 원리가 우리를 인생의 내적 폭풍우 위로 데려다 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름 속을 헤치고 나아가 밝고 푸른 지평선으로 날아오르는 것은 짜릿한 경험이었지만, 우리 모두가 겸손하고 진지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릴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의 경이와 견줄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폭풍의 시기를 넘어서도록 도와줍니다. 기도는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파란 하늘의 섬광을 볼 수 있게 해주며, 우리에게 새로운 경치 곧, 주님께서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근사한 축복에 대한 소망과 확신으로 가득 찬, 영광스러운 영적 지평선을 보여줍니다. ■

주

1. 예를 들면, Merriam-Webster Collegiate Dictionary, 제11판, (2003년), "lift", 718~719쪽 참조.
2. 해롤드 비리, Stand Ye in Holy Places (197년), 318쪽.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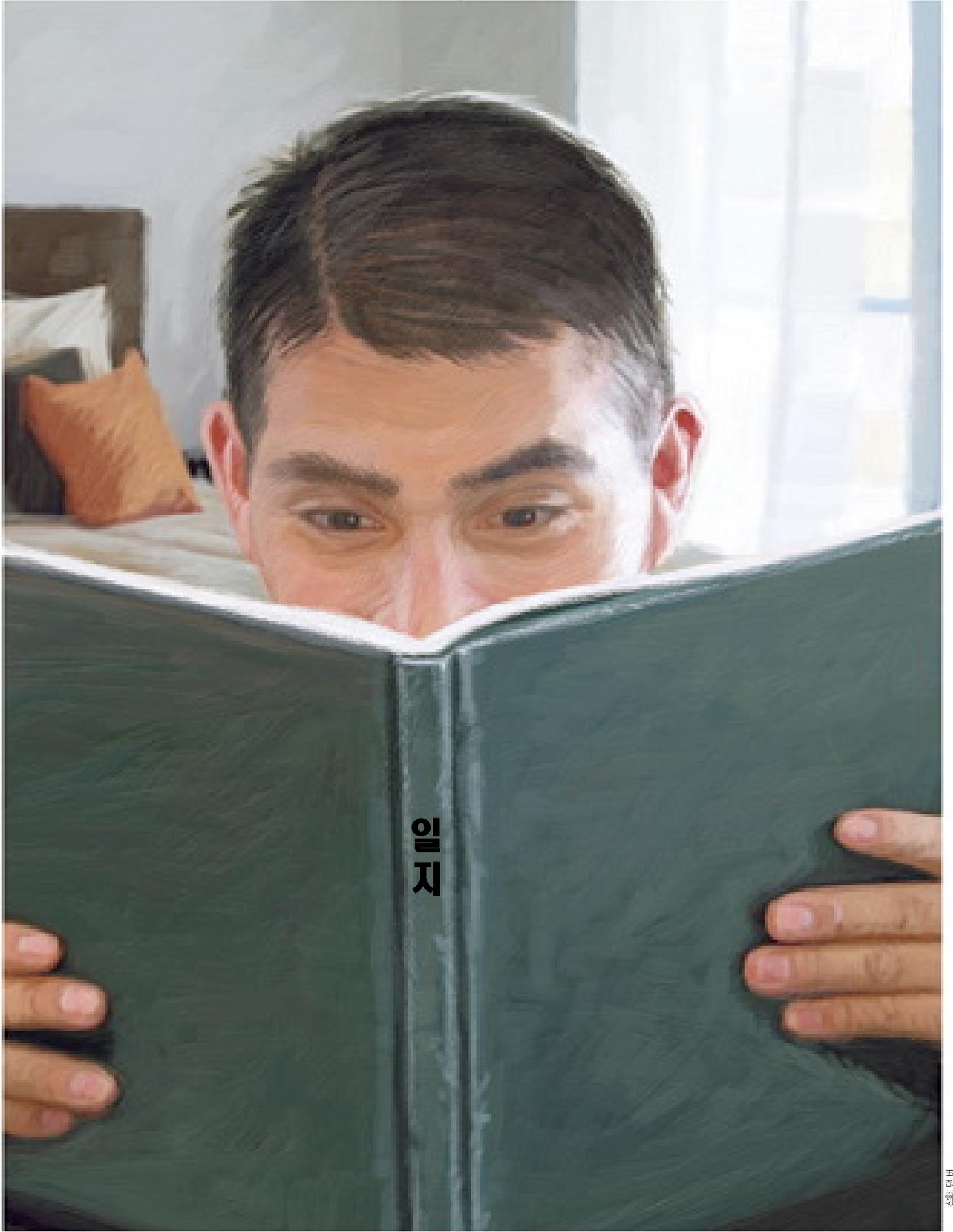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공부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면서 이 메시지를 나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비행기 사진을 보여주고, 들어 올리기의 개념을 설명한다. "새로운 경치"의 첫 번째 두 문단을 읽는다. 힘든 시기에 기도가 여러분을 들어 올렸던 경험을 나누고,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그들의 경험을 나누어 달라고 한다.

2. "새로운 경치"의 두 번째 문단을 읽는다.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종이에 "더 많은 영감", "계시", "의로움"이라고 쓴 다음, 그들의 눈높이 위쪽 선반에 붙여 놓는다. (또는 이 개념들을 나타내는 사진들을 사용한다.) 부모 또는 나이가 많은 형제자매에게, 나이 어린 아이가 선반의 종이를 볼 수 있도록 그 아이를 들어 올리라고 한다. 아이들에게 이 개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준다.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높은 영적 고도로 들어 올려"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지 토론한다.

3. 종이 한 장을 집어 들고 그것을 바닥에 떨어뜨린다. 그런 다음 그 종이를 접어 종이 비행기를 만들고, 부드럽게 던져서 날린다. 이 메시지의 마지막 세 문단을 읽는다. 기도가 어떻게 우리를 시련 위로 들어 올릴 수 있는지 설명한다. 기도에 관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눈다.





일지

너는 이미 알고 있다

에디 다니엘 차베즈 후안카

니 파이처럼, 나는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다. 나의 가족은 매일 경전 공부와 가족 기도를 했다. 나는 부모님이 조셉 스미스와 몰몬경과 복음의 각 원리에 대해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다. 이러한 경험 때문에, 나는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어떤 시점이 되자,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고 부모님의 훌륭한 모범을 통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교회가 참되다는 불타는 간증을 지닌 것도 아님을 깨달았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교 사업을 나가겠다는 꿈을 간직하긴 했지만, 나는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확실히 알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열여덟 살이 되기 직전에, 와드 선교사 준비반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또한 일지도 작성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선교사 준비반에서 결코 잊지 못할 공과를 들었다. 주제는 “몰몬경-선교 사업의 중심”이었다. 교사는 전 세계에서 몰몬경에 대한 간증을 전하는 젊은이들과 하나님께 여쭈어 보기 전까지 선교 사업을 나갈 결심을 하지 못한 한 청년의 경험을 그린 비디오를 보여주었다.

그런 다음 교사는 우리에게 간증을 전해 달라고 요청했다. 영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임했다. 나는 몰몬경이 내 삶을 축복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몰몬경이 참된지에 관하여, 또는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에 관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나는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쭈어 본 적이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

며칠 뒤 몰몬경을 읽는 동안, 나는 모로나이의 약속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모로나이사 10:3~5 참조) 무릎을 꿇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 부었다. 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지 또는 언제 응답을 받을지 몰랐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이러한 것들을 내게 알려주시리라 믿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 일지를 쓰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일지를 펴서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쓴 내용을 읽었다. 지난 일요일에 선교사 준비반이 끝난 후 기록한 것이었다. 느낀 점을 기록한 것을 읽는 동안 평화로운 느낌이 온몸을 감쌌다. 아주 확실하게 마음속에 이런 말이 느껴졌다. “너는 이미 알고 있다. 너는 이미 알고 있다.”

나는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렸다. 평생 믿어 왔던 것을 확인시켜 주는 응답을 받았던 것이다.

이제 나는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보았다는 것과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다. 내가 알고 있음을 알았기에, 페루 피우라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었다.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에도 겸손히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았다. 그리고 나는 이점에 대해 항상 감사할 것이다. ■

언어 장벽 극복하기



전 세계에 있는 회원들은 복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주님께 인도를 구하고 있다.

멜리사 메릴
교회 잡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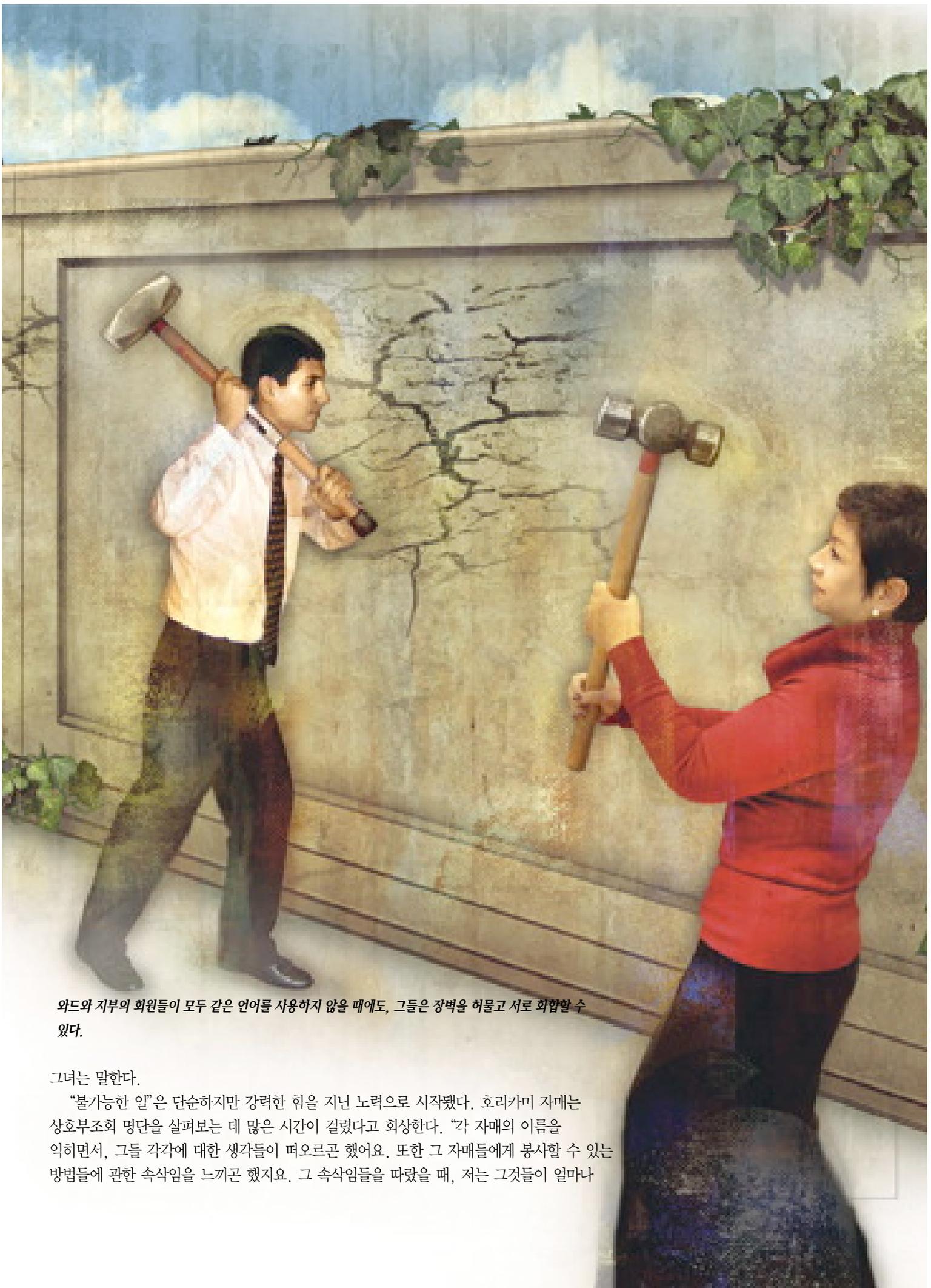
카 주 호리카미가 젊은 시절에 고향 일본을 떠나 하와이로 이주했을 때, 그녀는 영어를 배울 필요가 거의 없었다. 집에서 일본어를 사용했고, 일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장을 보았으며, 나중에는 일본인 관광객을 위한 가이드로 일했기 때문이었다. 가끔 언어 장벽을 경험한 곳은 교회가 전부였다. 그것은 많은 후기 성도들에게 흔히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교회에서조차도 그녀는 일본어를 사용하는 서너 명의 자매들과 우정을 쌓음으로써 잘 지냈다.

그러나, 하와이에서 25년 이상을 살고 난 뒤, 호리카미 자매는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은 큰 부담이 되었다. “대부분의 자매들이 영어밖에 못 했고, 일부 자매들은 사모아어나 통가어를 했습니다.”라고 그녀는 회상한다. “당시 다른 언어들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었지만, 그 언어들을 말하는 데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우리 와드 자매들이 말하는 것을 대부분 알아듣기는 해도,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봉사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호리카미 자매는 영어 회화반에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럴 만한 시간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스테이크 회장과 성전 추천서 접견을 하는 동안 자신이 걱정하는 점을 말했다. “스테이크 회장님께 제가 맡은 책임도 걱정이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될까 봐 더 걱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테이크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호리카미 자매에게 언어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금 당장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그냥 최선을 다해 일하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며칠 후에, 호리카미 자매는 성전에 있는 동안,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마태복음 14:22~33 참조) “저는 제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한, 가라앉게 될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구주를 믿는 신앙을 행사한다면, 그분께서는 제가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라고



와드와 지부의 회원들이 모두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그들은 장벽을 허물고 서로 화합할 수 있다.

그녀는 말한다.

“불가능한 일”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힘을 지닌 노력으로 시작됐다. 호리카미 자매는 상호부조회 명단을 살펴보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회상한다. “각 자매의 이름을 익히면서, 그들 각각에 대한 생각들이 떠오르곤 했어요. 또한 그 자매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방법들에 관한 속삭임을 느끼곤 했지요. 그 속삭임들을 따랐을 때, 저는 그것들이 얼마나

추가 제언

언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추가 제언들을 찾고 있습니까? 다음을 시도해 보십시오.

- 가능하다면, 회원들에게 자국어로 된 교과 과정 자료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배부 센터를 방문하거나, 북미 지역의 경우 www.ldscatalog.com을 방문하여 알아본다.
- 회원들에게 모국어 또는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로 된 리아호나를 구독하도록 장려한다.
- 가정 복음 교육이나 방문 교육의 임무를 정할 때, 회원들이 선교부 또는 학교에서 배운 언어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국어도 고려한다.
- 회원들에게 공통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회원들의 모국어 인사말이나 간단한 표현들을 가르친다.
- 부름을 수행할 때 서로 인내하고 지지해 준다.
- 회원들에게 언어가 중심이 되지 않는 것들, 가령 요리, 원예, 음악 등을 가르치도록 권유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 통역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한다. 자세한 사항은 www.lds.org에서 Serving in the Church를 선택한 다음, Interpreter's Resources를 클릭하여 알아본다.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것이었는지를 알고는 놀랐어요.”

“저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몇 달에 걸친 그러한 작은 행동들은 보살핌과 염려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저도 그들을 보살폈지만 그들 역시 저를 보살펴주었습니다.”

호리카미 자매는 결국 영어를 배웠지만, 그녀가 봉사하도록 도와준 것은 영이지 유창한 언어 능력이 아니었다고 강조한다. “저는 영이 언어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어요. 영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해요.”

호리카미 자매처럼, 전 세계의 교회 회원들은 언어 장벽이 가져올 수 있는 좌절감과 외로움을 경험한다. 그러나 호리카미 자매처럼, 그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주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다음은 전 세계의 회원들과 지도자들이 보낸 언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제언들이다.

언어는 부차적인 것임을 깨닫는다

언어 장벽을 극복하는 것은 80개국 이상에서 온 회원들로

이루어져 있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테이크에서는 익숙한 도전이다. 그러나 언어의 중요성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악셀 라이머 스테이크 회장은 말한다.

라이머 회장의 가족이 처음 프랑크푸르트로 이주했을 때, 그들은 독일어를 하지 못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자녀들과 다른 가족의 자녀들이 이것에 대한 가장 좋은 모범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서로 친해질 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찌 됐든 그들은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았습니다. 그들에게 언어 차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편견이나 두려움이란 감정을 아직 배우지 못한 상태였기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라이머 회장은 스테이크 내의 와드 부름에서 봉사하는, 영어를 사용하는 많은 부부 선교사들도 언어 차이 때문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부부들 중 많은 사람들이 독일어를 할 줄 모르지만, 그들은 임무를 수행할 때 그들의 많은 경험을 활용하며 큰 공헌을 합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자매님들은 유아반에서, 초등학교에서, 그리고 또 전에는 없었던 도서관에서 사서로 봉사했습니다. 몇몇 형제님들은 대제사 그룹 지도자, 재정 서기, 가정 복음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그들은 (통역해 줄 사람과 함께) 공과에 참여하며 때로는 가르치기도 합니다.”

라이머 회장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한다. “중중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공통된 기초입니다. 저는 복도에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지만 서로의 말을 알아들으며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언어에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것들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형제 자매님들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도움을 드리러 왔습니다.’”

사람들이 고국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돕는다

많은 경우에, 와드와 지부는 사람들이 자기 고국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 주는 방법으로 그들을 수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하와이 호놀룰루 스테이크의 맥컬리 와드는, 주일 학교를 8개 국어(추크어, 영어, 일본어, 한국어, 마셜어, 폰페이어, 스페인어, 통가어)로 가르친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원들이 자국어로 복음을 배운다. 더욱이, 성찬식 모임이나 공과에서 기도하도록 지명받은 회원들은 대다수의 회원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자신의 모국어로 기도한다.

주일학교 반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편, 맥컬리 와드는 모든 회원을 한데 모으는 활동을 계획하는 노력도



기울인다. 연례 국제 음식 축제, 상호 향상 모임 문화제, 마이크로네시아 합창단(와드 합창단과는 별도) 및 분기별 “오하나의 밤”(가족의 밤)과 같은 정기적인 행사를 통해 와드의 전체 회원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 유산을 기념하면서 그들의 공통적인 영적 유산을 부각시킨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눈에는 인종이나 언어의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우리는 단지 이 진리를 가르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라고 맥컬리 와드의 말로 로페즈 감독은 말한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를 받아들인다

많은 사람들이 모국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자국 문화의 좋은 점들을 보유하고 싶어한다. 그와 더불어, 회원들은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세계 각국 출신의 회원들이 있는 프랑스 파리 동 스테이크의 에릭 말랑다이 회장은 이 점을 장려한다.

“일반적으로 지도자들은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불어를 배울 것을 독려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직업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랑다이 회장은 말한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서 스테이크의 회원들 역시 다른 언어 능력을 발전시키라는 권고를 받는다. 영어를 사용하는 와드 이외에도, 이 스테이크에는 세 가지의 특정 언어(중국어, 사모아어, 타갈로그어)를 사용하는 단위 조직이 있다. 그래서 이 언어들을 사용하는 회원들은 자국어로 복음을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스테이크 및 와드 지도자들은 회원들에게 영어 회화를 배우는 그룹에도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 작은 “군중”들이 기본적인 영어 회화를 배우기 위해 일주일에 두 번 모인다. 수업은 주로 “병원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는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은 어디입니까?” 등과 같은 말하기에 중점을

연습, 준비, 기도

인 도네시아 출신인 파비올라 시모나는 현재 호주 시드니 하이드파크 지부의 회원이다. 그녀는

새로운 언어뿐만 아니라 교회의 개종자로서 복음을 배우는 것에 관한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처음 교회에 가입했을 때, 저는 영어를 잘 구사하거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수줍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무척 힘들었습니다.

한번은 주일 학교에서 개회 기도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 저는 기도할 내용을 대충 종이에 적은 후 문법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훗날, 제가 교사로 부름 받았을 때, 저는 몇 주 전부터 준비해야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내 어색한 억양과 잘못된 문법을 알면서도 이해해주려 노력할텐데, 나 역시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공과를 가르칠 때 영이 도와주도록 많이 기도했습니다. 떨지 않게 해 달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제 말을 이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준비와 기도는 제가 언어 장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회 회원이 된 지 9년이 지난 지금, 저는 기도나 공과를 하라는 임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제가 더 많은 임무를 받아들일수록 더 많은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둔다. 그리고 스테이크의 많은 회원들이 후기 성도 일세대이기 때문에, 영어 수업의 일부는 기도하기 또는 가정의 밤 사회 보기와 같은 복음의 기본적인 것들도 초점을 맞춘다.

“우리에게 있어서 언어 문제가 중대한 도전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라고 로날드 달렌더 스테이크 회장은 말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가르칠 것이며, 회원들이 모든 스테이크 대회, 모든 스테이크 재능 발표회, 모든 훈련 모임,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회원이 교회와 복음이 제공하는 모든 모임과 활동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일한다

언어 차이는 성전 추천서 접견에서부터 성찬식 모임의 말씀과 기도를 통역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많은 장애를 준다고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스테이크의 브렌트 올슨 회장은 말한다. 관대하고 환영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스테이크의 회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올슨 회장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종종 스테이크에서 반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당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용의 태도를 취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도록 조금 더 노력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단지 복음대로 사는 것일 뿐입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마누레와 스테이크의 클렌돈 와드가 비록 영어를 사용하는 단위 조직이긴 하지만, 회원들은 마오리어, 니우에어, 사모아어, 통가어, 지역 방언, 그리고 쿡 제도의 몇몇 언어도 사용한다. 와드 지도자들은 “그들이 무슨 언어를 사용하든지 간에” 양 떼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아는 선한 목자처럼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가정 복음 교육이나 방문 교육의 임무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할 때, 동반자조를 자국어만 사용하는 회원과 자국어와 영어를 함께 구사하는 회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가정 복음 교육의 경우 두 사람이 함께 봉사하면서, 자국어만 쓰던 형제는 영어에 자신감을 얻게 된다. 나중에는 그가 성찬식 모임에서 말씀하는 임무를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일을 할

자질을 주신다는 것을 인식한다

프란시스코 아이레스 헤르메네길도는 스물한 살에 고향인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교회에 가입했으며, 후에 상파울루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다. 그와 그의 아내인 칼리야는 결혼 후, 2002년에 호주 시드니로 이주했다. 프란시스코는 2006년에 하이드 파크 청년 독신 성인 지부의 회장으로 부름 받았다. 헤르메네길도 회장은 그가 여전히 영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지부의 회원들이 1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왔으며, 그들 중 많은 사람들 역시 영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에 중압감을 느꼈다.

“우리가 하이드 파크 지부를 돌보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부적합하다고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언어 장벽이 무척이나 높아 보였으므로, 우리는 주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영감과 자질을 주시며 그들을 강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헤르메네길도 회장은 말한다.

헤르메네길도 회장은 자신의 인생에서 주님의 인도를 인식하는 것 이외에도, 지부의 다른 회원들의 삶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본다. 지부의 회원들은 대부분 그와 같이 일세대 회원들이다.

“우리 각자가 이 시간에, 이곳에 보내진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각 회원이 간증을 키우고, 부름에 봉사하며,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나눌 기회를 갖게 된다고 설명한다.

“우리는 복음이 지상을 채울 것이라는 예언들이 실현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부 회원들은 그들이 가는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지도자이며 또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지도자들을 준비시키는 일은 큰 특권인데, 지부 회원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마다 우리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라고 헤르메네길도 회장은 말한다.

한마음 한뜻이 된다

“저는 문화와 언어가 다양한 와드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클렌돈 와드의 한스 키 감독은 말한다. “하나님께서서는 바벨탑이 세워지는 동안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눅 성의 백성이 이룬 것, 곧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의로움 가운데 거하라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창세기 11:1~9; 모세서 7:18 참조)

고든 비 힝클리 회장(1910~2008) 또한 이러한 화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는 범세계적인 커다란 교회가 되었으며, 이제 많은 나라에 있는 회원들이 거대한 가족으로서, 여러 언어를 통해, 한 신앙과, 한 교리와, 한 침례로 이러한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¹ ■

주

1. 고든 비 힝클리, “때가 찬 시대를 살아가며”,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4쪽.

모든 언어로 환영함

마리안 헨스 렌처

모든 회원들이 동일한 언어를 쓰지 않는 와드나 지부의 회원이십니까?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면서 이러한 경험은 점차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2년 동안 뉴욕에 있는 그러한 지부 소속이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던 제 경력이 도움이 되긴 했지만, 이런 경험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언어를 모르는 회원들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미소를 짓고 인사합니다. 그들의 모국어로 인사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언어를 전혀 모를지라도 그들에게 환영 받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마르타는 따뜻한 포옹과 스페인어 인사로 저를 반겨 주었습니다. 그녀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녀의 포옹과 어조를 통해 그녀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올바른 문법을 갖추어 대답합니다. 언어 학습은 듣기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공과책 아니요.”라는 말보다는 “공과책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부정확하더라도 정확한 문장으로 대답해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에 대한 존중감을 표하고 그들이 정확한 언어를 배우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크게가 아니라 천천히 말합니다. 가끔씩 단어가 섞여 들릴 때가 있는데, 특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는 속도를 줄여서 이해하기 쉽게 합니다.

상대방의 청각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크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사라면 외국에서 온 반원들이 질문을 이해하고 간단히 대답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다른 반원들이 그들을 돕도록 격려하여 반 분위기를 친근하고 편안하게 만듭니다.

시청각 자료를 활용합니다. 원어민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첫 번째 시현에 관한 공과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림은 이해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회복에 관한 이야기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연관지음으로써 어휘력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 성구와 자료를 칠판에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외국에서 온 회원들이 참고 자료를 찾는 것이 쉬워집니다. 다행히 교재와 경전은 다양한 언어로 출판되어 있습니다. 반원 중 한 명이 구절을 읽는 동안 반원들은 모국어로 된 자료들을 펼쳐서 내용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모든 사람이 공과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원들이 자신의 경전과 교재를 지참하도록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더 나은 가정 복음 교사 또는 방문 교사가 됩니다. 여러분의 나라에 처음 온 회원들에게 그들을 돕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들이 쇼핑하거나 우체국에 가거나 학교에 등록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만난 가장 소중한 친구들 중에는 제가 그들의 언어를 다섯 마디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것만으로도 우정 쌓기를 시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

반 토론을 진행함



가르칠 때, 반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이 조언들을 활용해 보십시오.

롭 존스
교과과정 개발

존슨 형제가 복음 교리반 반원들에게 질문했다. 그러자 공과반에는 갑자기 긴 정적이 흘렀고 존슨 형제와 반원들은 그 정적을 불편해 하는 듯 했다. 스테이크 주일학교 회장으로 공과를 참관하면서 나는 몇몇 반원들이 말을 하려는 순간에 존슨 형제가 질문의 답을 이야기하면서 공과의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았다.

이런 일은 교회 공과 시간뿐 아니라 가정에서 가르칠 때도 일어날 수 있다. 나는 반 토론을 활성화하는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음을 배웠다. 그것은 (1) 답이 한 개 이상인 질문을 하는 것과 (2) 반원들에게 답을 찾거나 생각할 시간을 적절히 주는 것이다.

정해진 답이 없는 질문을 한다

올바른 유형의 질문을 함으로써 훌륭한 반 토론을 유도할 수

있다. 교회의 교재는 반원들이 답을 하기 위해 가르침을 찾거나 그들이 배운 것을 숙고하여 적용하게끔 고안된, 신중하게 만들어진 다양한 질문들로 가득하다.

여러분은 질문을 함으로써 반원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경전이나 후기의 사도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찾게 할 수 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교재에 나와 있는 가르침 제언을 기초로 하여 두 가지 찾기 질문의 예를 들어보자. “52쪽에서 시작하는 단락을 살펴 보세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구주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211쪽에서 시작하는 단락을 복습하겠습니다. 육신을 갖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조셉 스미스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다른 질문들은 반원들에게 그들이 읽은 것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거나 그들이 배운 것을 생활에 적용하게 한다. 이러한 질문들은 보통, 반원들이 교재의 내용에 익숙해진 후에 사용한다. 예를 들어, 위의 찾기 질문을 한 후에 다음 질문을 함으로써 반원들이 읽은 내용에 대해 생각하고 적용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속죄의 희생에 대해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는 “육신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몸을 돌보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반원들의 반응을 기다린다

여러분의 질문이 무엇이든 간에, 반원들에게 답을 찾거나 생각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준다. 학생들은 여러분이 먼저

답을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질문에 답하는 방법을 익히게 될 것이다.

존슨 형제의 반에서 있었던 경험 이후에 나는 교사들이 질문을 한 후 얼마나 오랫동안 대답을 기다리는지 조사해 보기로 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2초 내지 3초 정도밖에 기다리지 않았는데, 알아보니 그들은 자신이 훨씬 더 오래 기다린다고 여기고 있었다. 반면 반원들은 답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사들이 반원들의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나는 그들에게 질문한 후 마음 속으로 20까지 세면서 반원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라고 제안했다. 그들은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까” 또는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런 다음 대답을 듣겠습니까?”와 같은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스테이크 내의 교사들이 이 방법을 쓰기 시작하자 반원들의 참여가 늘어났으며, 그들이 “서로 가르치기”(교리와 성약 88:77) 시작하면서 함께 영을 느끼게 되었다.

내가 참석했던 반 중에는 교사가 복음 교리의 적용에 관한 질문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2분 이상 주는 경우도 있었다. 나에게 그 시간은 조용한 명상의 시간이었다. 나는 영을 느꼈고 그 시간이 아니었다면 알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다. 이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나는 반원들에게 질문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 사고의 깊이를 더하고 영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제3니파이 17:1~3 참조)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질문을 한 후 모두에게 대답하기 전에 생각할 시간을 준다면, 여러분의 반원이나 가족도 이와 비슷한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반원들의 대답은 영을 초대한다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전달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중요한 교훈을 영이 가르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러한 참여는 반원들의 삶에 영의 인도를 가져올 것입니다. 반원들이 손을 들고 질문에 답하도록 격려한다면,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영적인 자세를 보이게 됩니다.

선택의지를 그렇게 활용하면 영이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더욱 힘있게 인도해 줄 것입니다. 참여는 개인들이 영의 인도를 경험하게 해 줍니다. 그들은 영적 인도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느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To Learn and To Teach More Effectively”, *The Religious Educator*, 9권 제1장, 2008년 6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수리남에 사는 이 청년이 극적인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단순한 일들이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리차드 엠 롬니
교회 잡지

이브 페르베이는 조용한 편이며 약간 수줍음을 타는 편이다. 그러나 그는 해야 할 일을 찾아 행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음악가들

열여덟 살인 이브는 수리남 파라마리보 지방부 타멘가 지부 소속이다. 그는 자신이 교회 모임이나 활동 모임에서 키보드를 연주할 때 많은 사람들이 키보드 연주를 배우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들을 위해 무료 강의를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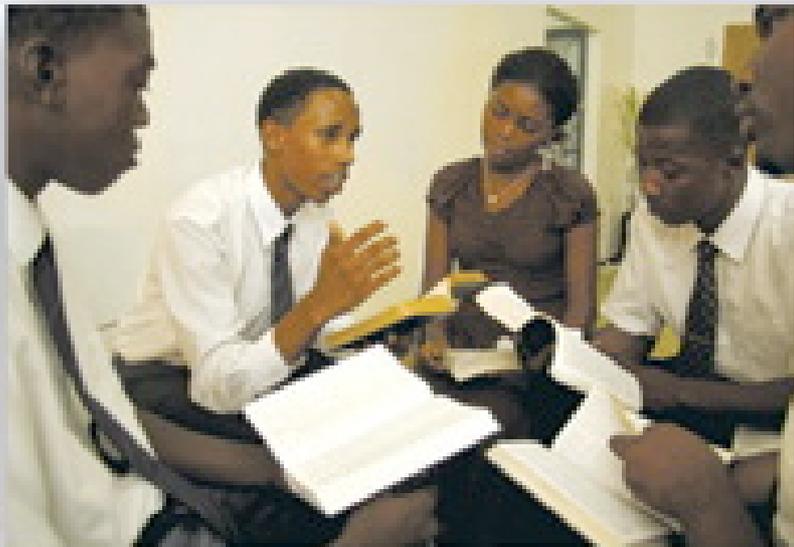
그는 여러 지부에서 강의를 하는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브가 가르치는 저녁 시간의 대부분은 최소한 여섯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석하는데, 그들 중에는 후기 성도도 있고, 지부 회원들을 통해 이 강의를 알게 된 비회원들도 있다. 그는 원하는 사람들에게 플루트도 가르친다. 또 지부 합창단을 지휘하며 지방부 합창단의 특별 발표를 지도하는 일도 하고 있다. 그는 음악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악보 보는 법과 음악을 연주하는 법을 가르쳐 준 부부 선교사에게 감사를 표하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경전 읽는 사람들

이브는 또한 경전에서 배운 것을 서로 나누고 싶어하는 몇몇 친구들을 도울 방법을 찾았다. 그들은 교회와 세미나리 또는 종교 교육원에 참석했고, 지명을 받아 말씀을 했으며, 공과에



참여했다. 그러나 그들은 청소년들간의 대화를 원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30분 정도 몰몬경을 함께 읽기 시작했으며, 다른 청소년, 특히 저활동 청소년들을 초대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현재, 돌아가면서 각자의 집에 모여 수개월째 경전을 함께 읽고 있다.

“처음엔 와니카 지부의 래리 로즈발과 우리 지부의 사피라 지젤라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여덟 명이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 장을 읽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간증을 나눈 후, 그 주에 배운 것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합니다.”라고 이브는 말한다.

이 경전 읽기 친구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서로를 격려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금식일을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목적을 가지고 금식하기로 했다. “지난 일요일, 우리는 저활동화 된 친구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교회 활동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라고 이브가 설명한다.

선교사의 친구들

전임 선교사들은 회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이브는 이 부분도 무시하지 않는다. 그는 할 수 있는 한 자주 선교사들과 함께 토론에 참여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선교사들과



수리남 국기의 별처럼, 이브는 그의 빛을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 그는 후기 성도들과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키보드 연주를 가르친다. 또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몰몬경도 공부한다.



될 것을 고대하고 있다.

이브는 이렇게 말한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저는 니파이전서 3장 7절을 암송했고 그 구절에 관한 노래를 불렀어요.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 따라서 선교사 부름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¹

함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덕분에 제가 더 긍정적으로 변했고, 행복해졌습니다.”

선교사들도 그와 함께 하면서 같은 느낌을 받는 듯하다. 이브는 모든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에너지를 발산하며, 그들도 이브가 진리에 대한 간증을 기꺼이 나누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브는 곧 열아홉 살이 될 것이며,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게



책에서 얻는 도움

이브는 몰몬경이 많은 면에서 그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몰몬경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줍니다. 또한 저는 오래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읽으면서 복음에 관한 질문의 답을 얻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몰몬경이 성경의 중요성과 목적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다고 말한다. 그는 신앙개조 8조를 인용한다. “우리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또한 몰몬경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그는 “성경은 단순하고 소중한 일부 내용들을 잃어버렸지만, 몰몬경이 그 빈 자리들을 채워줍니다. 우리는 성경과 몰몬경을 모두 공부해야 합니다. 다른 경전들도 마찬가지이고요.”라고 말한다.



축복을 세는 사람들

이브는 어머니가 회원이 되면서 교회에 대해 알게 됐다. 그는 당시 일곱 살이었고, 1년 후에 침례와 확인을 받았다. 그는 부모님이 이혼하고 빚 때문에 집이 팔리는 것을 지켜보는 등 어려운 시기를 보내기도 했지만 늘 활동적인 회원으로 생활했다. 일요일에 양복과 넥타이 차림으로 교회에 걸어가는 동안에는 사람들의 놀림을 받기도 했다. 그는 “교회에 왜 그런 복장을 하고 가는지 알기 때문에 별로 개의치 않아요.”라고 말한다. 그는 사람들이 그에게 담배와 술을 권할 때 거절하고 돌아섰다. “싫다고 말하는 것이 어려웠던 적은 없어요.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건강과 영적인 힘을 가져다 주죠. 그들이 제게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요?”

그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 이브는 늘 축복을 세는 사람이 되어 왔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받은 복을 세어 보라고 권한다.

“복음에 대해 배우고 어떻게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배우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됩니다. 행복은 근사한 사람이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표준을 지니고 그에 따라 생활하는 데서 옵니다. 행복은 삶에 주어진 모든 훌륭한 것들에 대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 역시 이브가 생각하는 해야 할 일들 중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실천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

주

1. “니파이의 용기”, *어린이 노래책*, 64~65쪽 참조.

선교 사업에 기대가 큰 이브는 어머니와 함께 자신의 침례식을 추억하며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모임에서 회원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며, 수리남의 수도 파라마리보에 있는 구시가지를 방문하는 것을 즐긴다.

함께 어울리는 법을 배움

남 아메리카 북부에 위치한 수리남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된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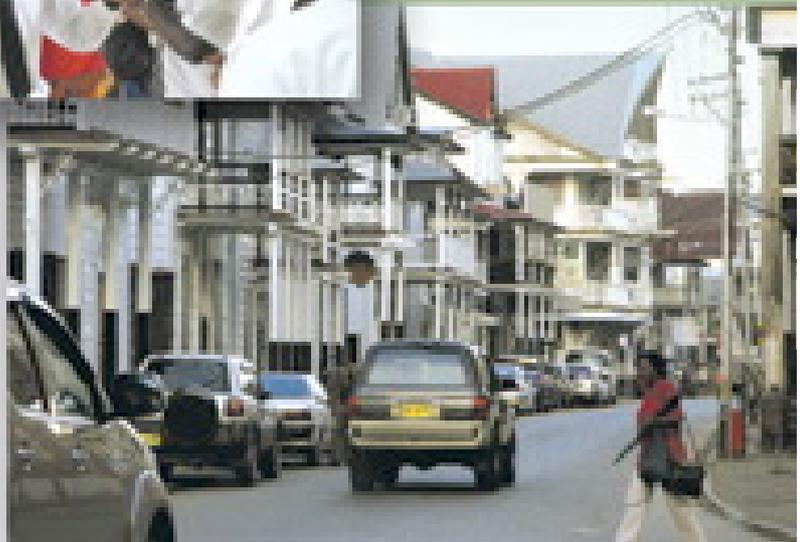
인구의 대다수는 동인도인(본래 인도 출신), 크리올인(본래 아프리카 출신), 자바인(인도네시아 출신), 마룬인(탈출한 노예들의 후손, 미대륙 원주민(다수가 카리브족임) 및 중국인이 차지한다.

사람들은 네덜란드어(공식어)와 영어, 스리넨통고어(크리올어), 힌두스탄어, 자바어 및 기타 방언을 사용한다. 수리남은 1975년에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했는데, 그 이전에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다.

“수리남에서 모든 사람들은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것을 배웁니다. 그런 점은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리남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믿음에 관해 듣는 일에 익숙하거든요.”라고 이브가 설명한다.

수리남 최초의 개종자가 침례를 받은 것은 1989년의 일이다. 오늘날 수리남에는 여섯 개의 지부, 즉 블라우그룬드, 니케리, 파라마리보, 티멘가, 위티즈크, 와니카 지부와 700여 명의 회원들이 있다.



20 마르크 지폐



보이드 케이 파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이 젊은 선교사가 왜 저에게
20마르크를 건넸을까요?
그것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우리의 삶이
실제로 우리의 것이 아님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30년도 더 전에 저는 당시의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님과 함께 유럽에 주둔해 있는 군인 회원들을 위한 스테이크를 조직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독일 알프스 지역 바바리아 고원에 위치한 베르흐테스가텐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원래 그곳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곳으로 아돌프 히틀러가 사령부를 세웠던 지역이었습니다. 지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아돌프 히틀러만큼이나 그 성격과 목적이 사탄을 닮은 경우도 드물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어 우리는 그가 본부로 활용했던 바로 그 장소에 시온의 스테이크를 조직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성별과 스테이크의 구성을 마친 후 우리는 베를린으로 가서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알프스 산맥 높은 곳의 베르흐테스가텐에서 뮌헨의 공항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출발 예정인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안개가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항에 앉아서 거의 12시간 동안 안내 방송을 들었습니다. 곧 안개가 걷힐 것이라는 방송만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나 안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다 되었을 때 두 명의 선교사가 공항으로 왔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비행기들이 이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정에 뮌헨을 떠나 베를린으로 가는 기차가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장로들은 우리를 기차역으로 데려다 주었고 표를 사는 것을 도와주고 우리가 기차에 오르는 것도 지켜봐 주었습니다. 그것은 자정 즈음에 출발하여 다음날 아침 10시에 베를린에 도착하는 기차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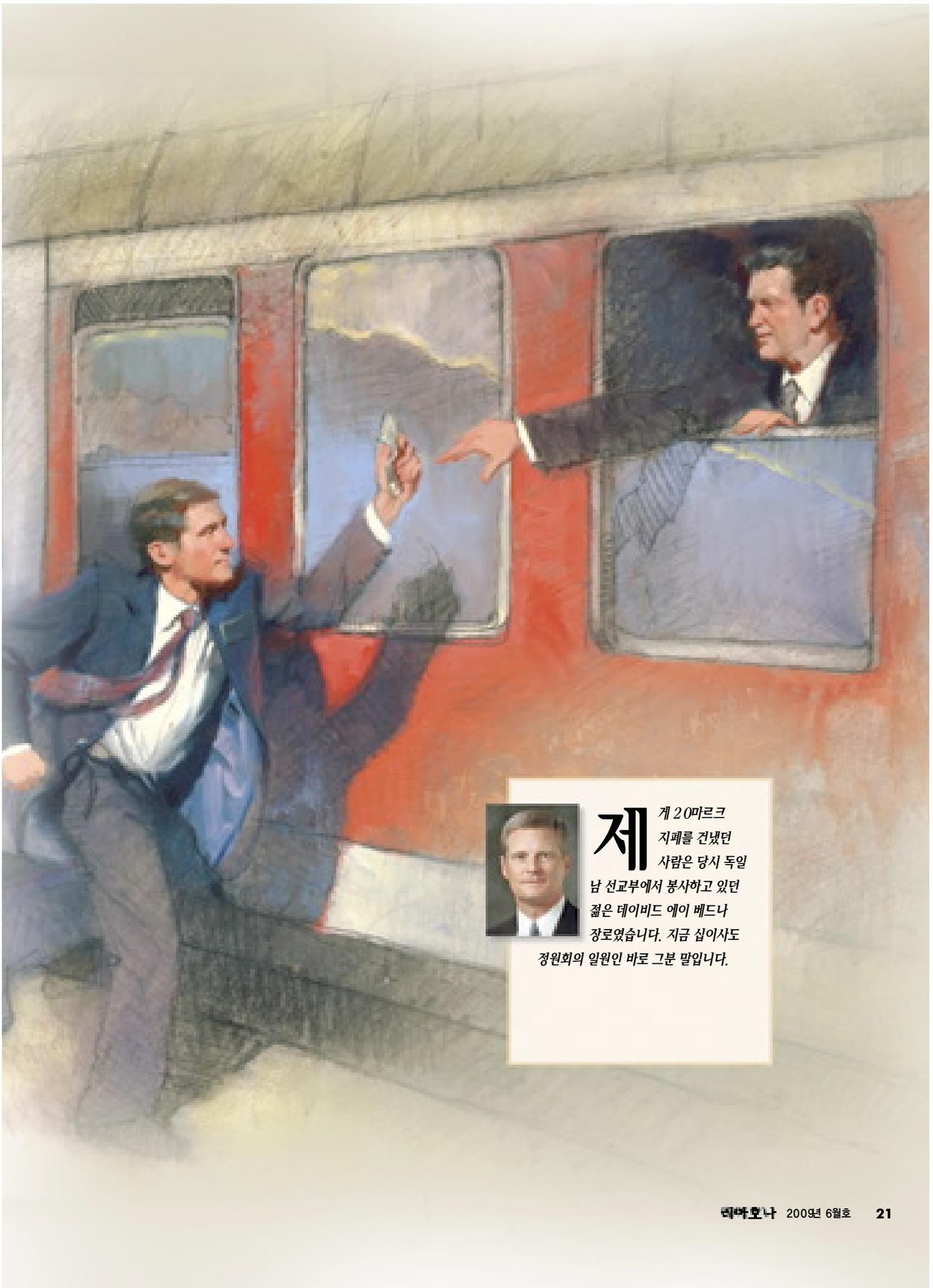
기차가 출발할 때 젊은 장로 한 명이 물었습니다. “독일 돈 좀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는 기차를 따라 달리며 주머니에서 20마르크 지폐 한 장을 꺼내어 제게 건네 주었습니다.

당시 철의 장막은 이름만큼이나 철통 같았습니다. 기차는 서독과 동독의 국경인 호프에 정차했고, 승무원들이 교체되었습니다. 모든 서독 승무원들은 열차에서 내렸고 동독 승무원들이 승차했습니다. 그런 후 열차는 동독 영토를 달려 베를린으로 향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얼마 전부터 5년간 유효한 여권을 발행하기 시작하던 때였고, 저는 5년짜리 새 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행 전에 아내의 여권을 갱신하려 했지만 담당자들은 3년 만기인 여권도 5년 만기 여권과 마찬가지로 유효하다고 설명하며 되돌려주었습니다. 아내의 여권은 만료일까지 2년 이상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두 시쯤, 고압적인 군인 신분의 차장이 와서 우리의 표를 확인하겠다고 했고, 우리가 독일인이 아닌 것을 알고는 여권을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원래 여권 내주기를 꺼렸습니다. 특히 불친절한 곳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의 여권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 누구도



제 게 20마르크
지폐를 건넸던
사람은 당시 독일
남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던
젊은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였습니다. 지금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바로 그분 말입니다.

싫어해본 적이 거의 없지만, 그 남자는 예외였습니다! 그는 고약하고, 투명스럽고, 험악한 남자였습니다.

우리는 독일어를 몰랐습니다. 객실 안에는 여섯 명이 있었습니다. 아내 옆으로 독일인 한 명이 앉아 있었고, 우리들 맞은편에 거의 무릎이 닿을 정도로 가깝게 또 다른 세 명의 독일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는 서로 조금씩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장이 들어오자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저와 그 사이에 대화가 오갔고,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아내의 여권을 문제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를 떠났다가 두세 번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침내 어찌할 바를 몰랐던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그 20마르크 지폐를 꺼냈습니다. 그는 돈을 쳐다보고는 지폐를 가져가더니 우리에게 여권을 돌려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베를린에 도착하자 회원 한 명이 열차로 와서 우리를 맞았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우리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제가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두 분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는지 설명할 길이 없군요. 동독은 현재 3년 만기 여권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들에게 자매님의 여권은 인정할 수 없는 여권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럼 어떻게 될 뻔 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열차에서 내리게 했을 겁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설마 정말로 우릴 내리게 했을까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두 분 말고, 자매님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새벽 두 시에 동독의 어딘가에서 제 아내가 열차에서 내려야 하는 상황을 지켜보는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분명 저는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른 채 속수무책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고, 특히 아내가 얼마나 큰 곤경에 처할 수 있었는지를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보다 아내를 훨씬 더 많이 챙깁니다. 우리는 매우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동독에서 인정하지 않는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체포 및 구금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인도됩니다

이 모든 사건 뒤의 또 다른 사실은, 제게 20마르크 지폐를 건넸던 장로의 이름이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라는 것입니다. 그는 당시 독일 남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선교사였고 지금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입니다.

그렇다면 캘리포니아 샌 리안드로 출신의 이 젊은 선교사가 왜 저에게 20마르크를 건넸을까요? 그것을 이해하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로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실제로 우리의 것이 아님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재하시는 분이 계시며, 우리가 올바르게 생활한다면 보살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20마르크 지폐는 환산하면 6달러 정도였는데, 선교사에게 6달러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올바르게 생활한다면,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이 무엇인지 안다면, 여러분은 결코 혼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교리와 성약 46편 2절에는 “그러나 기록된 그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나의 교회의 장로들에게는 그들이 성령에 의하여 지시되고 인도되는 대로 모든 모임을 사회하는 일이 처음부터 항상 주어져 왔고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주어지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체

경전과 계시가 설명하고 있는 교리는 우리가 이중적 존재임을 말해 줍니다. 우리는 영과 육신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영과 몸이 [영원토록 하나가 될 때] 곧 사람의 영혼이 [되느니라]”(교리와 성약 88:15) 따라서 여러분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 안에는 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지는 영원히 존재해 왔습니다.(교리와 성약 93:29 참조)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것은 믿고 계시지요? 부활하여,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여 러분에게는
영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지는
영원히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것 즉, 우리가 과거에 영원히 살았다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앞으로의 영원한 삶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어진 선 위에 있습니다.

저는 제 영이 몸을 떠나는 날에 대해 궁금히 여겨 왔습니다. 그렇게 “포장을 벗고” 육신을 벗어난 여러분의 영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영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 중에는 완벽히 조화를 이루어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완벽한 운동선수라 불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름다운 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몸에서 분리된다면, 여러분의 영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느낀다면, 여러분의 몸은 아름다운데 영은 위축되고 약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의 몸은 여러 면에서 제약을 받고 있지만,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의 영을 훈련하고 가르쳐서 불멸의 가치를 지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포장을 벗고” 영이 육신에서

분리되는 그날을 고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젊고 생기 있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늙고 병들었거나 다리를 절거나 다른 어떤 형태로든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활 때에 영과 육이 다시 하나가 되면,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알던 어떤 분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었던 이분은 한 무리의 소란스러운 소년들 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 있었고, 있어야 할 곳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지혜롭고 창의적인 지도자가 그들을 주일학교 교실에 모았습니다. 이 교사는 나이 많은, 지극히 평범하고 수수한 노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유럽에서 온 개종자였고 영어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킁킁거렸습니다. “우리 선생님이라고? 저분이?” 이 소년들은 어떤 교사든 쫓아 내기로 소문이 자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 그 이후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교사가 말을 하기

여 러분의
배움의 시간
동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십시오. 여러분이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낄 때, 경건한 순간들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것이 성전이 소중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성전에 감으로써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작하자 아이들은 모두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는 “그의 신앙은 우리가 손을 내밀어 불을 쥘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양을 숨기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이던 그 높고 지친 몸 안에는 강력한 영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 때에, 땅의 티끌이며 세상에 속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과 동등해지기 위해 더 강하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성신이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괜찮을 것입니다. 모든 악이 한데 모여, 마치 어둡고 추한 레이저 광선처럼 여러분에게 집중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에 응하지 않는 한, 그것은 여러분을 파멸시킬 수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가르침 받은 것들 이외의 것들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것이 읽는 것이나 들을 수 있는 것뿐이라면 여러분은 그리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낄 때, 경건한 순간들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것이 성전이 소중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성전에 감으로써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여러분이 성신을 받을 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한복음 14:26)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자동적으로,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고도, 여러분은 성신의 속삭임과 인도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이 젊은 선교사는, 이유도 모르는 채, 출발하는 열차를 따라 달리며 지갑에서 20마르크 지폐를 꺼내어 제게 건넸던 것입니다. 그는 큰 위협에서 우리를 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하고 나중에 되돌아보며 인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그곳에 가지 마라! 그 일을 하지 마라!”라는 경고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와 함께 가지 마라! 그녀와 함께 가지 마라! 그들과 함께 있지 마라!”라는 경고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과 함께 하라!”라는 속삭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도될 것이며,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저는 복음이 참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 계시며, 이 교회가 그분의 교회라는 것을 압니다.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이나 망설임 없이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하도록 하십시오. 첫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둘째,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이 하는 일과 행위는, 그것이 적절한 인도를 받을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

2007년 3월 12일, 브리검 영 대학교 아이다호 영적 모임에서 말씀한 내용에서 발췌. 영어 전문은 www.byui.edu/Presentations/Transcripts/Devotionals/3_12_Packer. 번역 불가.

진지한 기도를 드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성구와 인용문, 또는 필요한 경우,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다른 원리를 가르친다. 여러분이 방문한 자매들에게 그들이 느끼고 배운 것을 함께 나누도록 권유한다.



진지한 기도에는 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줄리 비 벡,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모든 자매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진지한 기도를 드린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이 모두를 합친 우리의 힘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만약 모든 가족이 매일 가족기도를 한다면 ... 우리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후기 성도 여성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섬”,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110쪽)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1915~1985), 십이사도 정원회: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께 가까이 가며 그분은 그의 손가락을 내밀어 우리를 만지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위대한 권능의 탐이요, 끝이 없는 의로움의 기둥이며, 산을 움직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힘입니다.” (“Patterns of Prayer”, *Ensign* 1984년 5월호, 32쪽)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모든 정직하고 진지한 기도는 사울 갑옷에 또 한 조각을 더해 줍니다. ...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열의에 차고 진지하며 일관된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Be Strong in the Lord”, *Ensign* 2004년 7월호, 10쪽)

교리와 성약 112:10: “너는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이 손을 잡고 너를 인도할 것이요, 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네게 주리라.”

진지한 기도는 성스러운 의사소통이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1920~2007), 제일회장단 제2보좌: “첫째,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임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는 죄와 범법에 대한 진지한 고백이며 용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는 자신의 능력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기도는 우리의 창조주께 감사를 표현할

기회입니다. 우리가 자주 “...감사드립니다.”, “...임을 압니다.”, “당신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섯째, 절대자에게 구체적인 축복을 간구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진지한 기도는 가슴에서 나옵니다. 참으로, 진지함은 우리 가슴 속의 진실한 감정에서 우리나라와야 합니다.” (“기도라는 생명선”,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62쪽)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의미 있는 기도는 성스러운 의사소통과 성결하게 되려는 노력을 모두 필요로 합니다. 축복은 우리가 그것을 받기 전에 어느 정도 우리의 노력을 요하며, 기도는 행함의 한 형태로서 모든 축복 중 최고의 것을 얻도록 정해진 방법입니다. (Bible Dictionary, ‘Prayer’, 753쪽) “아멘”이라고 말할 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 드린 바에 따라 행함으로써 기도라는 성결한 행위에 노력을 기울이며 앞으로 나아가고 인내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95쪽)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주님께 가족 기도와 개인 기도를 드릴 때 그분에 대한 신앙과 신뢰를 가지고 기도드립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전한 사도 바울의 권고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중 누구에게라도 항상 기도하라는 권고를 등한시해 온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61쪽) ■



우리의 고결한 하늘 가정

더글러스 엘 콜리스터 장로
철십인 정원희

우리가 휘장을 열고 우리의 하늘 가정을 볼 수 있다면, 그곳에 사는 분들의 풍요로운 정신과 마음에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하늘 부모님들이 참으로 고결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범을 통해 배우게 되는 이 위대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지상에 사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가능한 모든 면에서 하늘 부모님과 같이 되어 그분들의 면전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이노스의 표현대로 “기쁨으로”(이노스서 1:27) 그분들의 얼굴을 보기 위함입니다.

브리검 영 회장님(1801~1878)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사는 사람들처럼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범을 따르고, 그들을 닮고, 그들과 같이 걷고 말하려고 노력합니다.”¹ 저는 일시적으로 우리를 하늘 본향에서 분리시킨 휘장 뒤를 엿보고, 그곳에 존재하는 유덕하고 사랑스러우며 고결한 상황을 묘사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늘에 계신 분들의 완전한 모습뿐만 아니라 하늘의 언어, 문학, 음악과 예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늘에서는 이들 각각이 순수하고 온전한 형태로 존재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영은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들로부터 더 쉽게 감동을 받습니다.

언어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언어로 말씀하시며, 적절한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말씀을 자제하시며 과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창조라는 위대한 과정을 묘사하실 때, 그분은 “좋았더라”(창세기 1:4)라고 절제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멋지군” 이라거나 다른 과장된 표현을 쓰셨다면 우리는 아마 실망했을 것입니다.

영국의 벤 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어는 사람을 가장 잘 보여준다. 말 하라, 내가 당신을 볼 수 있도록.”²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생각, 가치관, 불안, 의심, 심지어 우리의 출신 가정까지 드러냅니다. 우리가 적절한 언어습관을 개발한다면, 하늘 아버지의 면전에서 더 편안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언어를 제대로 묘사해 본다면, 그것은 음악의 형태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에스 루이스가 “어떤 단어들의 조합이, 그 뜻과는 거의 무관하게, 우리에게 음악과도 같은 희열을 준다는 것은 신기하지 않은가?”³라고 기록했을 때, 그도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나타난 천사들은 노래하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누가복음 2:14) 오늘날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노래에 담으려 하지만, 원래 천사의 표현은 말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랄프 왈도 에머슨에 대한 전기에서 반 워브룩스는 위대한 시인이었던 셰익스피어의 탄생 300주년 기념식에서 말씀하도록 에머슨이



지상 생활의 목적들 중 하나는 모든 면에서 하늘에 계신 부모님과 같이 됨으로써 그분들의 면전에서 우리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초청되었을 당시를 기록했습니다. 정중한 소개가 끝난 후 단상에 섰던 에머슨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신의 원고를 두고 왔던 것입니다. 그는 잘 준비되지 못한 말을 하느니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에머슨의 가장 유려한 순간으로 여겨졌습니다.⁴

언어의 정제는 잘 다듬은 웅변술 이상의 것입니다. 이는 순수한 사고와 진지한 표현의 결과입니다. 때에 따라 어린이의 기도는 셰익스피어의 독백보다 하늘의 언어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언어의 정제는 우리의 어휘 선택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주제에서도 나타납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안정하거나 교만합니다. 항상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보통 지루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감동적인 책이나 영감을 주는 교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흔적을 남기는 소수입니다. 하늘에서 논의되는 주제들은 소소하거나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결합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정제되고 고결한 것에 대한 대화를 연습하고, 신중하게 선택한 어휘로 우리의 표현을 정확한다면, 그곳에서 집어 온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문학

금요일 저녁은 열광적으로 오락거리를 찾아나서는 때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아이작 뉴턴이나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짜르트를 배출할 수 있을까요? 85개의 채널과 수없이 많은 DVD들이 재미를 추구하는 우리의 끝없는 욕구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 검색에 빠져서 훌륭한 책을 읽거나, 대화에 참여하거나, 음악을 즐기는 더 풍성한 경험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하늘 집에 텔레비전이나 DVD 플레이어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 속으로 그려볼 때, 분명 그랜드 피아노와 웅장한 서재는 있을 것입니다. 고든 비 헝클리 회장님(1910~2008) 어린 시절을 보내던 그분의 집에는 훌륭한 서재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집은 아니었지만 서재에는 약

1,000여 권의 세계적인 명서들이 있었으며, 헝클리 회장님은 어린 시절을 그 책들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좋은 독서가 되기 위해 비싼 전집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도서관에 있는 책들은 부자나 빈자에게 똑같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1873~1978) 날마다 새벽 네 시에 일어나서, 맑게는 두 권의 책을 속독한 후 오전 여섯 시에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1,000여의 시를 암송으로 인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문학가들을 “준 선지자”라고 칭했습니다. 그는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교리와 성약 88:118)는 경전의 권고를 실천하는 면에서 표본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최근 4년 동안 동유럽에서 부름을 수행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메트로라 불리는 모스크바의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숙인 채 톨스토이, 체호프, 도스토예프스키, 푸쉬킨, 때로는 마크 트웨인 같은 작가들의 책을 읽고 있는 러시아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했지만 그들은 가난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의 풍부한 문화적, 예술적, 음악적 전통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맥케이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도 친구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더 나아지게 하고, 지성을 키우며, 세상의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들에 더 감사하게 만드는 책들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진흙탕에 빠져드는’ 기분이 들게 하는 지저분하고, 저속하며, 정속하지 못한 것들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⁵

물론 경전은 훌륭한 문학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데, 이는 경전이 인간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음악

하늘의 휘장 저편을 엿볼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지상에서 들었던 그 어떤 음악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늘의 음악을 듣고 영감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음악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고귀하고 품위 있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우리가 그 음악을 제대로





우 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영은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들로부터 더 쉽게
감동을 받습니다.

감상하고 이해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그 훌륭한 음악의 탓이 아닙니다.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듣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만일 한 젊은이가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주식으로 먹고 자랐다면, 그는 미식가가 되기 힘들 것입니다. 잘못된 훌륭한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보다 못한 음식을 먹고 자랐을 뿐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늘 감자튀김 종류의 음악만 들으며 자라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모아놓은 음악을 점검하여 자신을 고양시키고 영감을 주는 것들만 골라낼 좋은 시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원한 여정을 성숙시키는 과정의 일환입니다. 또한 지금은 악기를 배우거나 미완의 음악적 재능을 향상시킬 좋은 시기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 (1926~2009)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 너무나 무미한 것들에 치우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훌륭한 음악에 대한 취향을 개발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너무나 현재의 음악에 치우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대에 걸쳐 가장 훌륭한 음악에 사람들이 귀 기울이도록 해야 합니다.”⁶

훌륭한 음악의 지대한 영향력을 가리키며, 오스카 와일드는 그의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쇼팽의 곡을 연주하고 나면, 나는 마치 내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운 것 같고, 내 것이 아닌 비극에 대해 애도하고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든다.”⁷ 헨델은 *메시아*를 초연한 후 받은 칭송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들을 그저 즐겁게 만든 것뿐이라면 유감입니다. 저는 그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⁸ 하이든은 “작곡을 할 때 가장 좋은 옷을 차려 입었는데, 그것은 그때야말로 그가 창조주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⁹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에는, 너무나 고귀한 시간이어서 아름다운 음악이 함께하지 않는 경우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캐를 없는 성탄절이나 성스러운 찬송가가 없는 연차 대회를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음악의 지고한 아름다움이 없는 천국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영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는 음악이 없습니다. 모든 좋은 음악은 천국에 속하기 때문입니다.”¹⁰ 지옥에 가서 영원히 음악을 듣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큰 징벌일 것입니다.

예술, 외모 및 태도

가정에 훌륭한 언어와 문학과 음악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 것만큼이나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우리의 하늘 가정에 전시되어 있을 법한 훌륭한 미술 작품입니다. 또한 우리의 외모와 예절, 가정의 질서, 기도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방법도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여배우 오드리 헵번이 *마이 페어 레이디*라는 영화를 찍는 동안 그녀를 잠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정숙하지만 촌스러운 꽃 피는 아가씨로 분한 영화의 첫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그녀의 얼굴에는 석탄가루가 묻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저만의 향수를 뿌리고 있었어요. 마음 속으로는 제가 여전히 숙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숙녀가 되기 위해 비싼 향수를 뿌릴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의 모습에는 깨끗함, 정숙함, 자존감과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오래 전 제 동료 중 한 명이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면 아내에게 구체적인 칭찬을 한 가지씩 함으로써 그녀를 기쁘게 해 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아내의 요리를 칭찬했습니다. 두 번째 저녁에는 살림을 참 잘 한다는 칭찬을 했습니다. 세 번째 저녁에는 아내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훌륭한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 저녁, 그가 말을 꺼내기 전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계획이 뭔지 알겠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그런 말들은 안 해도 돼요. 그냥 당신 눈에 내가 아름다워 보인다고만 말해 줘요.”

그녀는 자신에게 있는 중요한 필요사항에 대해 말했습니다. 여성들은 그들의 외모에 기울이는





우 리가 하늘 부모님의 고결한 사회를 향유하기에 합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들의 일족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심한 관심을 비롯해서, 참으로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에 풍성함을 더하는, 그들이 가진 모든 은사에 대해 칭송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가꾸지 않고 너무 편안함을 추구하거나 심지어 영망인 모습이 되어서 하늘 부모님에게서 받은 아름다움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솔하게 말합니다. “내 외양과 하나님이 나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러나 지상의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부모님도 자녀들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과 함께 말없는 실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제6대 회장인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1838~1918)에게는 소유물이 많지 않았지만 그분은 그것을 소중히 다루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모습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분은 1달러짜리 지폐를 다려서 주름을 찢습니다. 여행 가방도 남에게 맡기지 않고 꼭 손수 꾸렸습니다. 그분은 집안의 모든 물건, 심지어는 나사 하나도 어디에 있는지 알았으며, 모든 것에는 제자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집은 질서의 집입니까? 주님의 영을 초대하기 전에 우선 먼지를 털고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렌조 스노우 회장님은(1814~1901)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언제나 누추한 동굴 같은 곳에 살기를 원치 않으시며, 그들이 좋은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은 지저분한 사람들이 아니라 고상한 사람들을 만나기를 기대하십니다.”¹¹

스탠포드 대학의 학장이었던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엇이든 그 분야의 가장 훌륭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 행위는 저속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아둔한 일을 아둔한 방법으로 행하고 그에 만족하는 것을 뜻한다. ... 지저분한 일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데도 지저분한 옷차림으로 다니는 것은 교양 없는 일이다. 조약한 음악을 좋아하고, 졸작이고 시시한 책을 읽고, 선정적인 신문을 읽는 것은 저속한 일이다. ...

난잡한 소설과 저속한 극장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 싸구려 농담에서 기쁨을 찾는 것은 저속한 일이다.”¹²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하늘 가정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경험을 하고 왕국을 상속받을 준비를 하도록 그분의 면전에서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이 상을 잃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승영하신 분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왕과 여왕이 되도록 예임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한히 고결하고 아름다운 가정과 환경에서 살게 될 것이며 이는 언어와 문학과 음악과 예술과 하늘의 질서에서 보여질 것입니다.

영 회장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재능과 고상한 취향이 있음을 세상에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움과 진정한 탁월함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하늘에 증명하여 천사들의 사회를 향유하기에 합당해질 수 있게 됩니다.”¹³

더 나아가, 우리가 하늘 부모님의 고결한 사회를 향유하기에 합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들의 일족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시편 82:6)이기 때문입니다. ■

2008년 9월 19일,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하신 영적 말씀에서 발췌. 영어 전문은 <http://speeches.byu.edu>에서 볼 수 있다.

주

1. 브리검 영, "Remarks Deseret News, 1862년 5월 5일, 1쪽
2. 알거논 스윈번의 *A Study of Ben Jonson*에서, 에드워드 고스 외 편집, (192년), 120쪽.
3. 시 에스 루이스, *They Stand Together: The Letters of C. S. Lewis to Arthur Greeves*(1914~1963) (1979년), 96쪽.
4. 웬델 제이 에쉬튼, *In Your Own Image*(195년), 113쪽 참조.
5. 데이비드 오 맥케이, *Pathways to Happiness*, 르웰린 알 맥케이 편찬(195년), 15쪽.
6. 닐 에이 맥스웰, LaMar Barrus의 "The Joy of Music"에서, *New Perspectives* 99년 4월, 10쪽.
7. *The Works of Oscar Wilde*(190년), 112쪽.
8. "A Tribute to Handel"에서, *Improvement Era*, 192년 5월, 57쪽.
9. 할 윌리엄스의 "Dr. Reid Nibley on Acquiring a Taste for Classical Music"에서, *BYU Today*, 198년 4월, 14쪽.
10. *Discourses of Brigham Young*에서 발췌. 존 에이 윌소(195년), 24쪽.
11. 로렌조 스노우의 *Wilford Woodruff: History of His Life and Labor*에서, 마티아스 에프 코올리 편집, (196년), 468쪽.
12. 데이비드 스타 조던, *Inspirational Classics for Latter-day Saints*의 "The Strength of Being Clean"에서, 잭 엠 라이언 편찬(200년), 19쪽.
13. *Discourses of Brigham Young*, 424쪽.



다음 걸음을 내 디디십시오



걱정이나 의심 때문에 전임 선교 사업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준비를 갖추고, 태도를 확고히 한 후, 가십시오!
(교리와 성약 15:6 참조)

달려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지상으로 올 때 받았던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육신이다. 교리와 성약 89편에 있는 지혜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모든 성도의 현세적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와 뜻”(2절)을 가르쳐 준다. 다음은 지혜의 말씀에 관해 세계 여러 곳의 후기 성도들이 보내온 간증이다.

결코 너무 어리지 않습니다

저는 열세 살인데, 우리가 우리의 몸을 돌볼 때 지혜의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축복을 받아 “달려도 피곤하지 [않을]”(교리와 성약 89:20)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품을 먹고, 충분한 수면을 취할 때, 저는 더 튼튼해집니다. 제가 이 계명을 지키면 중독성 물질을 피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그 영향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활을 제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여 흡연과 음주가 우리를 더 인기 있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해 줄 것이라 믿게 하려 애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때로는 높은 표준을 지키는 것이 힘듭니다. 특히 학교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좋은 모범이 되고자 노력할 때 저는 친구들이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돕게 됩니다.

제가 지혜의 말씀을 지켜서 받게 된 가장 큰 축복은 영을 저의 한결 같은 안내자로 지닐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제 목표는 언젠가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빌 브이, 불가리아 플로브디프

당뇨병을 이겨냈습니다

저는 2006년 6월에 당뇨병 진단을 받은 신일곱 살 된 할머니입니다. 약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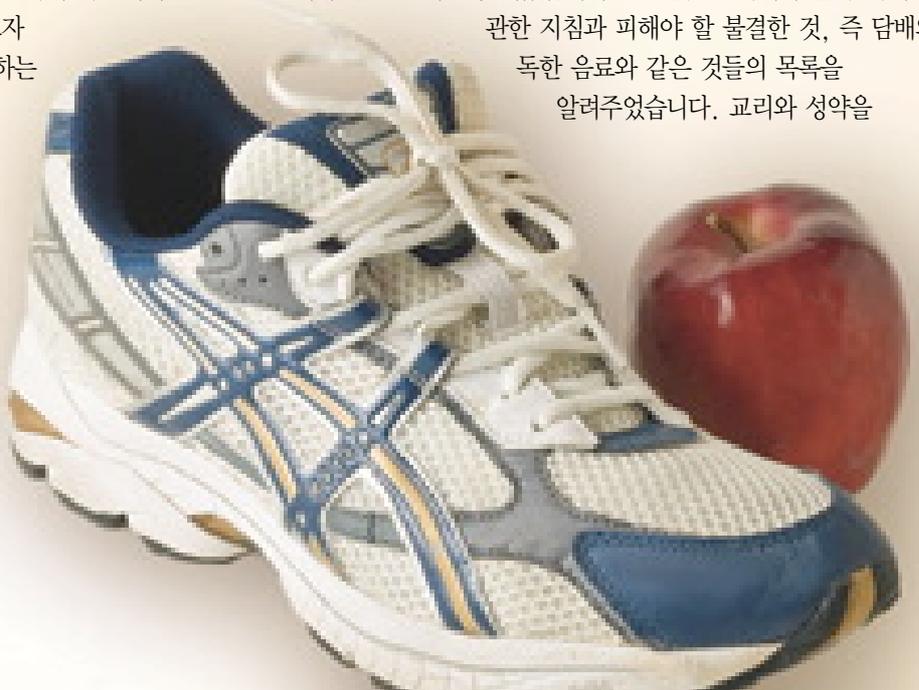
복용하면서, 한편으로 저는 지혜의 말씀에 의존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음식 섭취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저는 약 40킬로그램을 감량했고, 그 체중을 유지해 왔습니다. 의사가 당뇨병과 고혈압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날, 저는 지혜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큰 축복을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지혜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제가 받은 영적, 신체적 축복이 계속해서 제 생활을 축복해 주기 때문에 제게는 이 계명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비버리 루더포드, 미국 워싱턴 주

73세에도 마라톤을 합니다

저는 뼈가 휘는 병인 구루병을 지닌 채 브라질에서 태어났습니다. 열아홉 살 때 저는 164센티미터에 50킬로그램이었습니다. 그 결과, 군대에 갈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신체 조건을 개선시킬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운동을 시작했고, 균형 잡힌 음식을 섭취했습니다.

이때 저는 선교사들을 만나, 교회에 관해 알게 됐고, 계명에 관해 배웠는데 거기에는 지혜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필요로 하던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먹어야 할 음식에 관한 지침과 피해야 할 불결한 것, 즉 담배와 독한 음료와 같은 것들의 목록을 알려주었습니다. 교리와 성약을



읽고서 저는 휴식과 수면의 필요성에 관해 배웠습니다. (고리와 성약 88:124 참조)

저는 건강해져서 체중이 78 킬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역도 대회에서 우승도 했습니다. 또 유도와 수영도 했습니다. 지금은 일흔세 살인데도 마라톤을 하고 있으며 30번을 완주했습니다. 2005년과 2006년에는 브라질에서 제 연령대에서 2등을 했습니다. 저는 아주 건강하고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안토니오 올리비오 데 올리베이라, 브라질 상파울루

와인이 담긴 병

학교가 끝난 후 미장원을 청소하면서, 저는 파티에서 사용하고 남은 와인이 반쯤 담긴 병을 발견했습니다. 뒷사람에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묻자, 그는 “와인은 쏟아 버리고 병은 버려.”라고 말하고는 퇴근했습니다. 그가 나가면서 문을 잠갔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저는 평소 하던 대로 청소를 계속했지만, 그 와인 병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저는 열네 살이었는데, 와인을 마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셔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하고, 머리 빗을 소독하고, 대걸레로 바닥을 닦는 시간 내내 뒤편 작업실에 있는 와인 병이 생각났습니다. 한 모금 맛본다고 취하지도 않을 것이고, 아무도 그 사실을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가운데, 저와 하나님 아버지는 알 것이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고민은 끝났습니다. 이런 유혹에 굴복한다면 후회하게 되리란 걸 알았고, 저는 온갖 유혹을 이겨낼 정도로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와인을 배수구에 쏟아버리고는 병을 행구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 경험이 제 마음에 가져온 변화를 제외한다면 그것은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켜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계명을 지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옳은 이유를 위해 옳은 일을 행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게 유혹에 대항할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며,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을 따를 수 있다는 더 큰 자신감을 느낍니다.

베스 엠 스티븐슨, 미국 오클라호마 주

견디는 힘

침례 받은 그 다음 해에 저는 자원 소방대원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담배와 술, 차와 커피를 권했을 때에도 저는 지혜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그런 것들을 거절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저는 제가 몰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이 저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누가 소방대원으로 남을 수 있을지 결정하는 세 시간짜리 체력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무거운 제복과 장화를 신고 호흡 장비를 짊어졌습니다. 검사 전에 저는 다른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며 저를 비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유일한 십대였고, 그들은 제가 그런 힘든 시험을 통과할 수 없으리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지독히 무거운 호스를 짊어지고서 운동장을 몇 바퀴 돌았습니다. 한 바퀴를 돌아 다리와 몸이 쑤서 왔고, 동료들은 저를 비웃었습니다. 바로 그 때 고리와 성약 89편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무릇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며 행하기를 기억하는 모든 성도는 그들의 배꼽에 건강과 그들의 뼈에 골수를 얻을 것이요, ... 달려도 피곤하지 ... 아니하리라.”(18, 20절)

저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며,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신앙을 그분께 간구했습니다. 몇 사람이 제가 괜찮은지를 확인하러 다가왔고,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즉시 고통이 다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달렸고, 다른 사람들이 피곤해서 땅에 쓰러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도 멈추고 싶은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험에 통과했지만, 제
동료들은 그 시험을 되풀이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지혜의 말씀에 순종한 덕분에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저와 함께하셨으며,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한다면 그분의 무한한 자비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카스트로 마린, 칠레 산티아고

매일 결심함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나고 이틀 후,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제 눈에 비친 제 모습은 맘에 들지
않았습니다. 눈 밑의 다크서클, 창백한 피부, 나쁜
자세, 5~8 킬로그램의 과체중. 부모님을 보살폈던
지난 3년이 남겨 준 흔적이었습니다. 두 분이 2년
간격으로 병으로 쓰러져 돌아가시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제가 여러 주 동안 잘 자지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도 못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무리도 아니었습니다.

스물여섯 살의 나이에 저는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원래대로 살면서 집안 내력으로
내려오는 당뇨병이나 심장병이나 암으로 쓰러질
위험을 무릅쓰든지, 아니면 관리를 해서 제 건강을
우선 순위로 챙길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몇 주 동안이 아니라 제 일생을 위해 꼭 내려야
했던 결정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전과는 정말 다른 방법으로 지혜의
말씀에 따라 살아보겠노라고 말입니다.

남편과 저는 일 주일에 두세 번 정도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제가 얼마만큼의 칼로리를
섭취했는지를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과일과 채소를 식단에 추가했습니다. 노력이
필요했지만, 영양성분 표시를 읽는 방법과 건강에 더
좋은 식품을 선택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제 성공의 진정한 핵심 열쇠는 현실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체중 감량을
하고, 원기를 회복하고, 건강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헌신적으로 뒷받침해

준 남편의 도움 덕분에 저는 이 세 가지 모두를
성취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식생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체력과
식사량 목표를 설정하고 매일마다 그것을 달성하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그 당시에 누군가가 제게 언젠가는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솔직히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원하지만 한다면 생활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산 증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을 지닌다면,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노력을
뒷받침해 주실 것입니다.

최상의 건강 상태에 도달하려 노력할 때 저는 제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심을 했기 때문에 제 머리는 더 맑아지고
빨라졌으며, 제 몸은 더 튼튼하고 활기차졌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순종하는 모든 성도가 “그들의
배꼽에 건강과 그들의 뼈에 골수를 얻을 것이요,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 참으로 감추인 보화도
찾[을]”(교리와 성약 89:18~19)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건 샌더, 캐나다 온타리오 주

계획을 세움

어머니와 제가 침례를 받은 직후, 어머니는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이 없는 직장
여성으로서 어머니는 요리할 시간이 없었고, 따라서
우리는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를 더 많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열두 살 밖에 안 되었는데도, 저는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만큼 힘이
없었습니다. 피곤을 느꼈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체중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몸매를 가꿀 수 있는지 어머니께

여쭙봤습니다. 의학적인 대답을 기대했던 저는 어머니께서 “지혜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거라.”라고 말씀하셔서 조금 놀랐습니다. 칼로리와 탄수화물과 지방에 관해 조언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어머니의 그 대답은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월요일 가정의 밤 시간에 우리는 교리와 성약 89편을 살펴보고 섭생과 활동에 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생활방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좀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더 큰 평화와 성신에게서 오는 조용한 속삭임을 느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신성하고 개인적인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에릭 디 리차즈, 미국 유타 주

일찍 일어나

일찍 일어나라는 말이 교리와 성약 89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88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찍 네 잠자리에 들어 피곤하지 않게 하고, 일찍 일어나 너희 몸과 너희 마음이 활력 있게 하라.”(124절)

남편은 일하러 가기 위해 아침 다섯 시에 일어납니다. 과거에 저는 남편과 함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자고 싶었고, 10대의 아들들이 일어날 때에도 저는 계속해서 잤습니다. 밤에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남편은 밤 11시, 때로는 더 늦은 시간까지도 자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졸음 운전을 할 때도 있었기에 저는 남편이 걱정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일어나 그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자녀들이 등교하기 전에 깨어 있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포옹한 뒤에 그들을 학교에 보냅니다.

남편도 지금은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항상 개운하지 않던 제 잠자리가 훨씬 편해졌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때만큼 많이 잘 필요가 없습니다. “일찍 일어나라”는 권고를 따르려 노력했기 때문에 제 생활의 많은 점들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

린다 데이비스, 미국 유타 주





중독 극복

한 번에 한 단계씩 치유함

리아 맥클라나한
교회 잡지

“약 일년 전, 저는 일리노이 주 어딘가에 있는 약물과 술로 가득한 트레일러에서

깨어났습니다. 제가 무엇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이라고는 출장 중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겨우 10분만에 동료들을 따돌리고는 곧장 술집으로 갔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3일 동안 종적을 감췄습니다. 출장을 갔던 이튿날 저는 다시 비행기로 집에 돌아오게 되어 있었고, 그날은 바로 제 딸아이의 생일이었습니다. 바로 1년 전 이야기입니다.”

1년 전 마크(가명)는 약물과 알코올 중독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전에도 그것들을 끊으려 노력했었다. 감독을 찾아가기도 하고, 전문가와 상담도 하고, 재활 센터에도 가 봤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무런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 일리노이 주에서의 그 결정적인 순간이 있고 얼마 후, 그는 교회의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에서 후원하는 12단계 중독 극복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는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켜 줄 원리와 지침을 발견했다.

그가 프로그램 워크북과 주례 회복 모임에서 배운 원리들을 공부하고 적용하면서 변화가 일어났다. 워크북은 12단계를 활용해서 독자들을 회복으로 인도하는데, 각 단계는 정직이나 희망, 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같이, 회복에 필수적인 원리를

교회의 중독 극복 프로그램을 통해,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어떻게 중독을 극복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배운다.

담고 있다. 주례 모임에서 참여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용기를 얻고, 원리를 적용하면서 얻은 자신들의 경험을 나눌 수 있다.

마크는 중독에서 회복으로 가는 여정이 힘들긴 하지만, 이미 그 여행을 마친 사람들을 아는 것만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을 배웠다. 회복을 이미 경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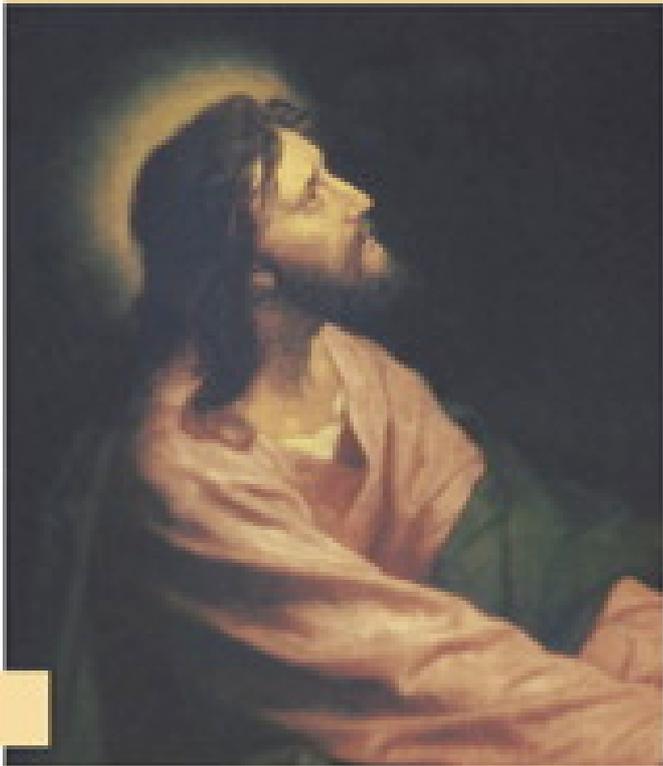
촉진자는 각 모임에서 자신의 회복에서 얻은 경험담을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 마크는 현재 촉진자가 되어 매주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이 혼자서 아니며 중독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중독이라는 함정

“대번 실패한 다음에 저는, ‘이번은 다를 겁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일이 제 인생에 일어나는 걸 원치 않아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반복됐습니다.”

마크는 활동적인 교회 회원이었다. 중독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었다. 지혜의 말씀과 같은 교회 표준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회원들을 여러 중독성 행동에서 안전하게 지켜 주지만, 해로운 영향력이 더욱 만연해 가고 있는 세상에서 중독은 심지어 후기 성도들 사이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마크는 알코올과 약물로 고생했지만, 중독은 물질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오는 힘은 극복을 가능케 한다. 극복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들이 잃었던 희망을 은혜를 통해 다시 얻게 된다.



남용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는 도박, 외설물, 섭식 장애, 부적절한 성행위, 타인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 포함될 수 있다.

어느 회복 모임에서든 다양한 형태의 중독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티브는 처방약에 중독됐었다. 처음에 그는 허리 부상 때문에 약을 필요로 했지만, 부상이 치료된 후에도 처방약을 더 얻기 위해 거짓말을 했고 결국 약을 훔쳤다. 감독단 보좌로 봉사하고 있던 스티브는 성찬식 사회를 보기로 되어 있던 어느 일요일에 양복을 입은 채 결국 감옥에 가게 됐다.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일부 지역에는 외설물이라는 특정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룹이 있다. 그런 그룹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가렛은 자신의 습관이 중독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다고

말한다. “제가 외설 잡지를 살 리는 만무했지만, 인터넷으로 보는 것은 너무 쉬웠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자신의 결혼 생활이 파탄 지경에 이르자 그는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프로그램을 시작함

“제 간증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능력 부족이 중독을 떨쳐버리려는 제 능력 부족과 어우러져, 수치심이 견딜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저는 다른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프로그램 참석자들 사이에서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말은 사람들은 “문제의 고통이 해결책의 고통보다 더 클 때”가 되어서야 회복을 갈구한다는 것이다. 마크도 그때가 되어서야 친구의 조언을 받아들여 후기 성도 중독 회복 모임을 찾았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친구나 신권 지도자의 권유를 통해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12단계의 극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아 오는 사람들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꺼린다. 교회 봉사 선교사로 일하는 수잔 자매는 참여자들에게 찾아오는 변화를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참여자들이 처음 모임에 오기 시작할 때에는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창피해하면서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몇 주 후에 그들은 새로이 찾은 희망으로 인해 고개를 들고 다닙니다. 이런 문제를 혼자서 겪고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 선교사들은 참여자들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매주마다 워크북에 있는 다른 단계에 초점을 두며, 촉진자는 그 단계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나눈다. 회복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싶은 사람은 성을 제외한 이름만을 언급하며 자신을 소개한다. 모임에는 항상 익명성과 기밀성의 원리를 상기시키는 순서가 포함되는데, 이 두 가지 원리는 안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 모임들이 갖는 중요한 점은 참여자들이 다시 영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선택이 회원자격 정지나 파문 상태로 이끌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간증할 수 있다. 이런 영적 환경은 참여자들이 12단계에 집중하는 동안 큰

힘을 얻는 근원이 된다.

극복으로 가는 단계들

“이 프로그램의 단계들을 밟아 나가는 것은 제가 항상 지니고 있던 간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복음을 단순화시켜 주었습니다.”

마크가 발견했듯이, 중독 극복 프로그램의 각 단계는 복음 원리를 실천하는 체계적인 방법이다. 12단계는 알코올 중독 방지회의 12단계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수정한 것이지만, 교회의 프로그램은 그 단계들을 “교회의 교리와 믿음에 맞게 적용시켰다”¹는 점에서 독특하다. 중독 회복 프로그램의 12단계는 속죄의 힘에 접근해 가는 실제적인 단계이다.

워크북, *Addiction Recovery Program: A Guide to Addiction Recovery and Healing*(물품 번호 36764은 12단계 및 이와 연관된 원리들을 설명하고 있다. 각 단계에는 경전 학습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깊이 생각해 볼 질문들과 기록을 위한 여백도 있다. 한 참여자는 12단계의 간단한 접근법이 그에게 희망을 주었다고 말한다. 클리포드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혼수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결혼 생활과 직장은 막을 내렸다. 그는 자신이 과연 인생을 되돌려 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12단계에 담긴 복음을 통해서 저는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개인 신상목록과 고백에 초점을 두고 있는 4단계와 5단계가 가장 힘들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마다 다르다. 강박적인 섭식과 인간관계에서의 과다 의존으로 시달리던 폴라는 용서함으로써 인간관계를 회복시켜주는 8단계를 수행하면서 학대적인 아버지를 용서하려 노력할 때 가장 힘들었다. 지금 그녀는 “제 인생에서 일어난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 기적에 대해 제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라고 말한다.

속죄에서 찾은 희망

“제게 일어난 변화는 항상 비참한 느낌을 갖고 생활하지는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을 지금 당장 제게서 거두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가 인내심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견뎌 내고, 진전을 보일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주님은 제가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정도로만 제 짐을 가볍게 해 주십니다.”



변화시킬 힘을 받음

“만약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키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면,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쁜 생각과 느낌들을 물리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캄캄한 암흑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모사이야서 27:29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1920~2007), 제일회장단 제2보좌, “변화시키는 힘”,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123쪽.

복음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온다고 가르친다.(이더서 12:27 참조) 은혜는 회복을 가능케 하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힘이다. 그것은 “신성한 도움 또는 힘”²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거나 지속할 수 없는 선행을 하도록 도와준다.

교회 봉사 선교사가 되기 전에 프로그램을 수료한 수잔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제가 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지셨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은 잃어버렸던 희망을 은혜를 통해 다시 찾는다. 참여자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는 교회에서 성장했지만, 어린 시절의 불안감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만큼 훌륭하지 않다는 느낌을 안고 살았다. “저는 속죄를 이해하지 못했고,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20대 시절에 부정적인 느낌을 누그러뜨리려는 마음에 술을 먹고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그런 생활은 20년 동안 지속되었다.

음주 운전으로 다시 체포됐을 때, 그는 치료 명령을 받았다. 그는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용서받고 자긍심을 되찾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다. 그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참석하고,

되는 것입니다.”

마크는 속죄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중독성 행동을 멈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독의 내재 원인까지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그들은 신권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 회개하고 그들의 삶에 복음의 축복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의 더그 레처미넨트 형제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힌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에 대한 우리의 최종 목적은 그들이 단순히 절제된 생활을 하는 것을 넘어, 성전 성약을 맺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장 멋진 열매는 활동 촉진, 침례나 재침례, 신권 승진, 성전 의식 및 축복의 회복이다.

안식일 복장을 한 채로 감옥에 갇던 스티브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12단계 덕분에 저는 지금 깨끗하고 절제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그의 활동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저는 아버지이며, 신권 정원회 고문입니다. 또한 제게 아낌없이 주었던 프로그램에 은혜를 갚고 싶기 때문에 지금은 촉진자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극복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매일 저는 기도와 경전 읽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침에는 회복에 관한 책을 읽고, 제 느낌과 생각을 글로 적습니다. 제 생각을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프로그램에서 제 후견인 역할을 하는 분에게 전화를 겁니다. 모임에 참석합니다. 봉사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중독에 빠져 살던 때로 다시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일들은 마크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프로그램을 거쳐간 다른 사람들도 영적인 힘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똑같은 진리를 발견했다. 어느 누구도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중독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복음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힘과 희망을 얻고 있다.

“저는 조금씩 교훈에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마크는 말한다. “제 본성이 변하고 있는데, 변화가 시작된 후로 제게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말 다시는 그 중독된 생활로 돌아갈 일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

주

1. 제임스 이 파우스트, “변화시키는 힘”,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124쪽.
2. Bible Dictionary, “Gracē”, 69 쪽; 경전 안내서, “은혜”, 231쪽 참조

중독 극복 프로그램의 12단계



1. 여러분 혼자서는 자신의 중독 증세를 극복할 힘이 없으며, 또 자신의 생활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음을 인정한다.

2.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영적 건강을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다.

3. 여러분의 의지와 생활을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살핌에 맡기겠다고 결심한다.

4. 철저하고 두려움 없이 자기 자신의 도덕성 점검 목록을 작성해 본다.

5.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적절한 신권 지도자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정확한 본질을 인정한다.

6.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성격적 결함을 없애주실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를 갖춘다.

7. 여러분의 약점을 없애 주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히 간구한다.

8. 여러분이 해를 입힌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글로 작성하고, 그들에게 기꺼이 보상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

9. 가능한 모든 경우, 여러분이 해를 입힌 모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보상한다.

10. 계속해서 개인 점검 목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잘못된 것이 있을 경우 즉시 그것을 시인한다.

11. 기도와 명상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천할 힘을 갖게 해 달라고 간구한다.

12.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결과로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경우,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서 이 원리들을 실천한다.

질의 응답

“몇몇 교회 친구들은 비회원 친구들과 종교에 대해 논쟁합니다. 논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 줄은 알지만, 제가 복음에 대해 느끼는 바를 어떻게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감정이 격앙되고 영을 느끼지 못할 때 여러분의 느낌을 나누려 애쓰기보다는, 성신이 도울 수 있는 곳에서 한 번에 한 명씩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다가갈 기회를 찾아보십시오.

친구들에게 복음에 관해 말할 기회를 간구해 보십시오.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의 믿음을 설명하고 간증을 전하십시오. 친구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십시오. 친구들이 더 배우는 데 관심을 보인다면, 전도용 카드를 주거나, 교회로 초대하거나, Mormon.org를 알려주거나, 선교사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그 말을 할지를 알도록 영의 인도를 간구하십시오. 다툼을 피하도록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친구들이 여러분과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주제를 바꾸거나 대화를 끝내는 것이 최선일 때도 있습니다.

인도를 간구하십시오



다툼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3니파이 11:29 참조) 따라서 이 훌륭한 복음을 그렇게 나누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복음을 나누는 좋은 방법은 여러분의 친구에게 교회나 활동에 참석하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제게는 친구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아는 데 기도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항상 여러분에게 일을 행하는 올바른 방법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셀레스트 알, 22세, 미국 캘리포니아 주

알 수 있는 방법을 친구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에 관해 논쟁하거나 다툼 때, 영은 떠나갑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영이 임하여 여러분이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과 그것이 참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언급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교회에 관해 이야기할 때, 저는 기도와 물문경 읽기, 자신의 마음 속 느낌에 귀 기울이기를 통해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다고 말해 줍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전히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간증에 담긴 힘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클레멘트 자매 선교사, 22세, 테네시 낙스빌 선교부

다툼을 피하십시오

제게는 다른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 어느 날, 그가 학교에 있는 제게 오더니 물문경이 참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기독교 교회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든 질문에 답한 후에, 저는 그가 제 대답에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대답들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교회의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같은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저를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볼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주님의 교회의 참됨에 관해 간증하는 것임을 조언 드립니다.

제이든 시, 13세, 미국 워싱턴 주

다툼은 적개심을 만듭니다



다툼은 결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을 멀리 쫓아내고 그 자리에 적개심과 증오의 감정을 남깁니다. 또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보는 방법을 바꿔 놓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토론하게 되는 것은 결국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며, 복음 진리와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져다 준 좋은 열매에 관해 여러분의 간증을 전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카를로스 에프, 19세, 베네수엘라 과리코 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존중하십시오



친구들에게 “내 종교는 참되고, 너희 종교는 그렇지 않아.”라고 말하기보다는,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십시오. 친구와 단둘이 있게 될 때,

여러분이 간증을 나누어도 될지 물어보십시오. 친한 친구 한 명과 그렇게 해 본 적이 있는데, 그 친구는 기독교인으로 그녀의 교회에 아주 충실하게 다닙니다. 그녀는 제게 간증이 있다는 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관해 이야기했지만, 논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너의 교회는 참되지 않아.”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중요시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친구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리적인 면에서 친구들과 의견이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의 간증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이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앤버 피, 17세, 미국 유타 주

복음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복음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을 알면서 이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에 관해 알고 싶어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여러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복음에서 발산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빛과 안내자가 되고, 가장 훌륭한 모범이 되십시오.

카마 장로, 20세, 가나 케이프코스트 선교부

간증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을 진심으로 친절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논쟁은 어디에서도 환영 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분은 사랑과 말씀과 모범을 통해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여러분이 가르치는 것의 지식적인 면에 대해 질문할 수는 있으나, 진지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증에 대해 질문하기는 어렵다.”([200쪽], 199쪽) 여러분이 참되다고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관해 간증하십시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의 참됨을 영이 증거할 때, 바로 그때가 여러분의 친구들이 이해하기에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이브리임 에스, 20세,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어느 누구와도 다투지 않음

“우리의 뉘는 이성과 우정 어린 설득과 정확한 사실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뉘는 시대의 도덕적 쟁점사항들과 복음의 영원한 원리에 관해 확고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되, 어느 사람이나 조직과도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다툼은 벽을 쌓고 장벽을 높입니다. 사랑은 문을 열어 줍니다.”

마빈 제이 애쉬튼 (1915~1994), 십이사도 정원회, “No Time for Contention”, Ensign, 1978년 5월호, 8쪽.

다음 호 질문

“저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해 왔지만, 제가 갖고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간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대답은 2009년 7월 15일까지 아래 주소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Liahona, Questions & Answers 7/09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이메일: liahona@dchurch.org

이메일 혹은 우편에 다음 내용과 동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와트(혹은 지부)

스테이크(혹은 지방부)

나는 답변과 사진의 인색을 허락합니다.

서명

부모 서명(19세 미만인 경우)

욕설을 허용치 않음

키이스 포터

19 62년, 아이다호 주 프레스톤 출신의 고등학교 동창 열한 명과 나는 주 방위군에 들어갔다. 캘리포니아 주의 포트 오드에 도착할 때까지는 기초 훈련이 마치 휴가와도 같았다.

새로운 군 환경과 독설을 퍼붓고 도덕성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다른 여타 신참들의 맹공에서 살아 남기 위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했다. 나는 신참 동료들의 괴롭힘을 견디기 위해 기회가 될 때마다 후기 성도 친구들과 함께 있으려고 노력했다.

기초 훈련 후, 몇몇 학교 친구들과 나는 계속해서 무선 통신 훈련을 받기 위해 포트 오드에 머물렀다. 얼마 후, 우리 훈련반 소속의 거칠고 덩치 큰 신참 두 명이 누가 가장 저속하고 상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한 대결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기상하면, 그들은 막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불결한 언어를 들을 수 있도록 가장 저급한 말로 소리쳤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들 앞에서 욕설을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 그들은 당황해서 나에게 몇 차례 욕설을 하면서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런 뒤 혼자 있을 때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그날 아침 늦게 쓰레기를 줍다가, 나는 막사 사이에 혼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갑자기 나는 누군가가 내게로 오는 것을 보았다. 나를 위협했던 신참들

중 하나였다.

그가 내게로 다가오는 동안 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다. 그러나 그는 그 나를 얼마나 존경하는지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고, 나처럼 살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싶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이 그가 어떻게 사는지 알게 되면 실망하실 거라고 했다. 그는 다시는 내 앞에서 저속한 말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뒤돌아서 떠났다.

내가 다음 막사를 지날 때, 두 번째 동료가 내게로 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나에게로 다가와 그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 사과했다. 그 또한 나를 얼마나 존경하는지에 대해 말하며 언젠가는 자신도 배운 대로 살고 싶다고 말했다.

나의 후기 성도 친구들이 휴가를 떠난 어느 주말, 이 두 청년은 그들 무리와

갑 자기 나는 누군가가 내게로 오는 것을 보았다. 나를 위협했던 신참들 중 하나였다.

함께 영화를 보러 가자고 나를 초대했다. 우리가 함께 걷고 있을 때, 누군가가 욕설을 했다. 그 두 명의 건장한 신참은 그들 무리에게 나와 함께 있는 동안은 욕설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영화를 본 후, 그 무리가 술을 마시러 클럽에 가기로 했을 때, 내 친구들은 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와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만 있게 되자, 그들은 내 가족에 대해, 그리고 우리 후기 성도 친구들이 사는 것처럼 젊은이들이 표준을 발전시키도록 도움을 준 내가 속한 교회에 대해 질문했다. 나는 그들의 질문에 답하고 교회에 관해 말해주었다.

나는 하늘은 올바른 편에 서는 자의 용기를 지지하고 축복한다는 것을 배웠다. ■



여기서 기다려!

데니스 살라자르가 새들리 파킨슨에게 들려준 이야기에서

내게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언제나 소중한 경험이다. 나는 철도 기관사이기 때문에 일정을 예측하기가 힘들다. 때로는 먼 지역으로 전출되어 일시적으로 아내와 자녀들과 떨어져 지내기도 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장거리 운전을 한 후에야 일주일에 겨우 며칠 동안 가족들을 볼 수 있다.

한 번은 휴식 시간 동안, 아내인 스칼렛과 아들들이 나를 만나러 왔다. 아들들은 여관에서 자고 식당에서 먹는 것을 즐거워했다. 이 여행은 그들에게 휴가와도 같았다. 이 활력을 주는 만남은 금세 지나갔고 오래지 않아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작별 인사를 나눴다. 우리가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선의 반대편에 이르렀을 때 나는 스칼렛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나는 철도 회사로 돌아가는 길이었고 스칼렛은 자녀들을 집으로 데려가는 길이였다.

나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미소지었고 스칼렛에게 다시 한 번 나를 만나러 와줘서 고맙다는 전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코트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찾았지만 전화기가 없었다. 휴대전화를 찾지 못한 나는 스칼렛의 차에 실수로 전화를 두고 왔음을 깨달았다.

가족과 연락하기 위해서도 휴대전화를 사용했지만, 직장에서도 그 전화기는 꼭 필요했다. 아내와 나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10분 가량 운전한

상태였지만, 나는 전화를 다시 찾아와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교차로까지 전속력으로 달려가 차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아내를 따라잡아 보기로 결심했다. 차를 돌리려고 할 때 “멈춰!”라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화를 되찾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겠지만, 나는 속력을 줄이기 시작했다.

두 번째로 “여기서 기다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강한 느낌이 온 몸을 휩쓸고 지나갔다. 논리나 상식을 무시한 채, 나는 길가에 차를 댄 후 시동을 껐다. 이유는 몰랐지만,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서 있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느낀 것이 성신의 속삭임이었음을 인식하자, 당황스러움이 평화로 바뀌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와 인도에 감사드리는 겸손한 기도를

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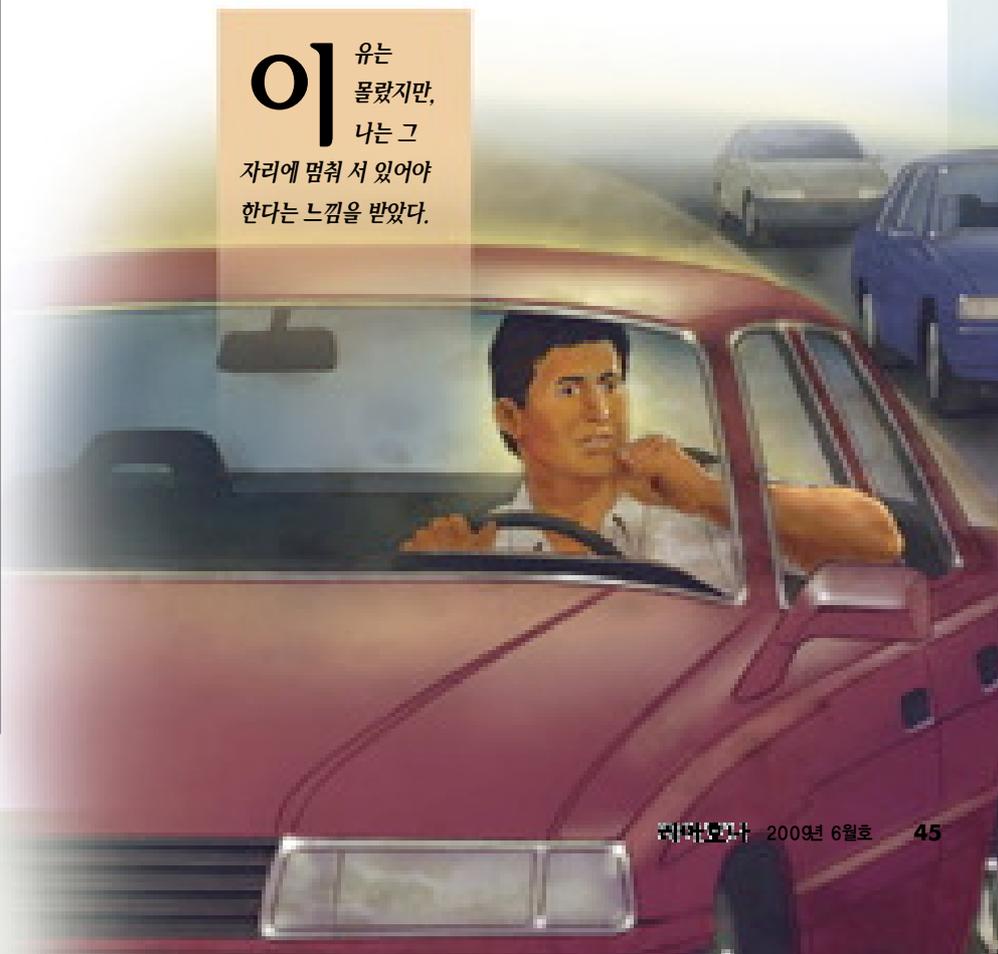
그로부터 얼마 후, 스칼렛이 나를 향해 운전해 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나를 보자 차를 재빨리 멈추고는 휴대전화를 들고 내게로 왔다.

“여기서 기다려야 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녀가 물었다.

성신의 속삭임을 들은 경험을 이야기 해 주었다. 우리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가득했다.

나는 아직도 그 일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 날 받은 신성한 도움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다. 그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을 알고 계시다는 우리의 간증을 강화해 주었다. 나는 몇 년 전에 받은 그런 인도를 받기에 합당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

이 유는 몰랐지만,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서 있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구주는 나를 잊지 않으셨다

롤랜드 리빙스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내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셨고, 매주 일요일에 나는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참석했다. 누나와 형은 영국 하트퍼드셔에 있는 지역 교구 교회의 합창 단원이었고, 그들의 모범에 따라 교회에 참석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여겨졌다.

나는 겨우 여덟 살이었기 때문에, 일요일 이른 아침에 있는 영성체 예배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됐다. 나는 늦잠을 자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일어나 자전거를 타고 아침 본 예배에 참석하곤 했다.

바깥에는 갓 내린 30센티미터의 눈이 대지를 덮고 있고 내 방 창문 안쪽에도 성애가 끼어 있던 1952년 한겨울, 나는 침대로 파고들며 그 일요일엔 교회에 가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어머니가 나를 깨우기 위해 부르셨지만, 나는 잠든 채 했다. 그때, 계단을 올라 오는 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알았어요. 일어나는 중이에요.”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무슨 소용이지?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없는데.”라고 중얼거렸다. 즉시 한 음성이 머릿속으로 들어와 이렇게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있단다. 그리고 언젠가 너는 나를 섬기게 될 거야.” 그 음성은 친구가 내게 말하듯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그 경험에 대해 잊었다.

성인이 된 후, 나는 영국 해군에 입대했고, 9년 후에는 소방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일을 마치고 난 어느 날 저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내가 문을 열자, 두 명의 자매 선교사가 자신들을 소개했다. 나는 피곤했고 먼지투성이었으며 배도 고팠다. 그래서 저녁 늦게나 다른 날 다시 오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놀랍게도 자매 선교사들은 한 시간 후에 다시 왔다. 나는 그들을 안으로 들였다. 그들이 이야기를 시작하자 마자, 나는 그들의 메시지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 집이 다르게 느껴졌는데, 그것이 이 두 자매 선교사가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들은 그날 밤에 첫 번째 토론을, 그리고 그 다음 날 밤에 두 번째 토론을 가르쳤다. 그 후로는 내가 모든 토론을 마칠 때까지 두 명의 장로가 매일 밤 나를 찾아왔다. 나는 몰몬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은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영적인 경험이었다.

나는 토론이 끝나고 1주일 뒤에 침례 받기로 약속했다. 침례 후, 로스 장로와 풀러저 장로가 그들의 손을 내 머리 위에 얹고 성신의 은사를 주었다. 그들이 내 머리에 손을 얹자마자, 20년 전에 경험했던 그 영이 다시 내게로 왔다. 내 안에 보존되어 온—그러나 내가 살면서 행한 실수들로 인해 억제되어 있던—귀중한 그 어떤 것이 내 기억과 영적으로 다시 만났던 것이다. 내게는 너무도 큰 존재인 구주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니 나는 무척 감격스러웠다.

내게 복음을 가르쳐 준 선교사들과 내가 성장하도록 도와준 나의 첫 번째 와드의 회원들에게 감사한다. 무엇보다도 한때는 존재를 의심했으나 지금은 진심으로 섬기는 나의 구주께 감사드린다. ■

한 음성이 머릿속으로 들어와 이렇게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단다.”



주님이 돌보심

피에라 주파르도

결 혼 후, 내 가장 큰 소망 중 하나는 대가족을 갖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에서 네 명의 여자 아이와 세 명의 남자 아이가 내 가족이 되는 것을 보았다. 내가 자녀를 갖기 시작하면서, 주님은 남편과 내가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질병이나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신권 축복과 기적들이 행복한 결말을 가져다주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슬픔에도 대처해야 했지만, 나는 임신 중이었으며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도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서 계속 도와주실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분이 도와주신 한 가지 방법은 내게 평안을 주신 것이었다. 성전에 있는 동안, 나는 남편이 잘 있으며, 그에게는 지상을 떠나야 할 이유가 있었고 장막 저편에서 우리를 도와줄 것임을 알게 되었다. 또한 머지않아 성전에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나는 3개월 뒤에 다시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모두 어려운 것임을 알았다. 나는 이탈리아에 있는 나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스위스 베른 성전에 참석했다.

숙소에서 나와 성전 근처를 걷고 있을 때, 교회 회원 한 명이 나를 멈춰 세우고는 봉투를 건네 주며 말했다. “자매님을 위한 겁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다. “저는 이것을 받을 수 없어요.”라고 말했다.



교 회 회원 한 명이 내게 봉투를 건네며 “자매님을 위한 겁니다.”라고 말했다.

“받아 주세요. 성전에 있는 동안, 이것을 자매님께 드려야 한다는 영의 음성을 들었습니다.”라고 그가 말했다.

돈을 세어 보니, 그것은 이탈리아에서 성전까지 차량으로 왕복 여행을 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액수였다. 3개월 후에 나는 다시 성전을 방문했다.

주님은 또한 내가 병원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 얼마 후에는 응급실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딸 기회가 생겼다. 나는 자격증 받을 수강했으나, 아이가 태어나고 2주 후에 시험이 있었다. 나는 모든 과정을 공부했고 수업을 이수했지만,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이 2주 동안 새로 태어난 딸도 돌봐야 했다. 나는 몹시 걱정이 되었다. 공부할 시간이 없었기에 나는 시험에 합격할 자신이 없었다.

나는 거의 포기한 채 시험을 보지 않으려 했으나, 한편으로는 주님이 이 기회를 통해 나를 축복하시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도했을 때, 영이 내가

해야 할 부분을 모두 했으니 주님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나는 주님이 도우실 것이라 믿으며 시험을 쳤다. 시험이 내가 제일 잘 아는 부분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안도했다. 나는 합격했고 응급 처치 자격증으로 인해 내 가족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기회가 더 생겼다. 나는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신앙으로 순종하며 간구할 때 도우신다는 것을 안다. 그분이 내가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게 도우셨음을 알고 내가 자녀들과 남편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음을 안다. ■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가르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다음 제언들은 가정에서만뿐만 아니라 교회 공과반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반원들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너는 이미 알고 있다”, 6쪽:
에디 후안카의 이야기를 나눈다. 가족들에게 모로나이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를 읽히고 한다. 모로나이가 주는 약속에 대해 토론한다. 가족들에게 물문경과 조셉 스미스에 대한 간증을 적게 한다. (어린 자녀들은 물문경과 선지자를 그릴 수 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16쪽:
“니파이의 용기”(어린이 노래책, 64~66쪽)를 부르며 활동을 시작한다. 이브 페르베이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가 니파이처럼 선행을 할 기회를 찾았던 방법들을 요약한다.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봉사했던 긍정적인 경험에 대해 나누어 달라고 한다. 가족으로서, 이번 주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방법에 대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본다. (또는 기사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한다.) 니파이전서 3장 7절을 읽고 토론함으로써 마친다.

“20마르크 지폐”, 20쪽: 공과 전에 집안에 있는 몇 가지 작은 물건들을 포장한다. 20마르크 지폐 이야기를 나눈다. 포장한 물건들을 보여 주고, 가족들에게 포장을 뜯기 전에 각각의

물건들이 무엇인지 추측해 보라고 한다. 여러분이 포장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들이 무엇인지 안다고 설명한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대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식과 우리가 인도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이유에 비유한다. 기사의 마지막 네 단락을 읽고, 주님의 인도를 받기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토론한다.

“우리의 고결한 하늘 가정”, 26쪽:
기사의 처음 두 단락을 읽은 뒤 가족들을 지명하여 언어, 문학, 음악, 예술, 외모 및 태도라는 각각의 네 가지 영역에서 생각을 발표하게 한다. 각 영역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좀 더 하늘 가정과 같이 만들 방법을 토론한다. 가족으로서, “하늘 가정”이 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는 매체를 가정에서 제거하기 위한 목표를 세운다. 이와 더불어 좋은 책과 예술과 음악을 가정으로 들어오는 목표를 세우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다. 앞으로 가질 가정의 밤에서 이런 활동들이 여러분 가정의 영에 가져다 준 변화에 대해 토론한다.

“달려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32쪽: 이 기사에서 몇 가지 간증을 읽는다. 가족들에게 지혜의 말씀대로 사는 데서 오는 축복에 대한 자신들의 간증을 적게 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어린 자녀들은 교리와 성약 89편 10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음식들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가족들에게 항상 지혜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도록 권유한다. 이 공과 후에 영양가 있는 간식을 내올 수 있다.

“주님을 따르는 용기”, 친 4쪽:
가족들에게 구주를 따르기 위해 무언가를 포기했던 경험을 나누어 달라고 한다. 무엇이 그러한 포기를 쉽게, 또는 어렵게 만들었는지 묻는다. 클라우디오디 지빅 장로님이 일요일에 달리기를 포기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의 결정으로 인해 그가 겪게 된 어려움과 축복에 대해 토론한다. 기사의 마지막 단락을 읽으며 마친다.



이번 호의 주제들

페이지 수는 기사의 첫 페이지를 뜻합니다.

친 = 친구들	성신, 8, 20, 45쪽
가르침, 14쪽	성전, 47, 친6쪽
가정, 26쪽	속죄, 36쪽
가족, 친10, 친13, 친16쪽	신앙, 2, 8, 25, 친14쪽
간증, 6쪽	언어, 8, 26쪽
개종, 46쪽	영감, 20, 45, 46, 47쪽
건강, 32쪽	영성, 2, 20쪽
경전 공부, 16쪽	예술, 26쪽
기도, 2, 6, 25, 친14쪽	용서, 친14
다툼, 42쪽	음악, 16, 26쪽
단합, 8쪽	일지, 6쪽
말씀, 26, 44쪽	재능, 16, 친8쪽
문학, 26쪽	주일학교, 14쪽
방문 교육, 25쪽	종족, 36쪽
봉사, 친2쪽	지혜의 말씀, 32쪽
부름, 8쪽	초등학교, 친14쪽
부활, 20쪽	친구, 42쪽
선교 사업, 42, 46쪽	표준, 32, 44, 친4쪽
선교 사업 준비 6, 16, 31쪽	회개, 친14쪽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가정의 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가정의 밤에 대한 설명을 liahona@ldschurch.com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 매튜 라머

새로운 교회 역사 도서관이 6월 말 개방될 예정이다.

교회 역사 도서관 개관

김벌리 보웬, 교회 잡지

개척자들이 솔트레이크 계곡에 정착한 이래로,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의 Main Street와 North Temple Street 모퉁이(교회 건물의 정북쪽)에는 많은 건물들이 세워졌다.

브리검 영 회장(1801~1877)제1보좌였던 히버 시 킴블(1801~1868)소유했던 이 땅에 집과 학교, 제분소, 대장간, 약국, 식당, 아이스크림 가게, 댄스 교습소, 볼링장, 광고 회사 및 유타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의 전신이자 후에 선교 본부가 된 라파에트 학교가 자리잡았다.

역사의 일부가 된 많은 건물들이 세워진 이 땅에, 이제는 역사 그 자체가 세워지게 되었다.

교회 역사 도서관

최근 완공된 교회 역사 도서관은 2009년 6월 22일 대중에게 개방된다. 23만 평방미터의 도서관에는 전 세계에서 수집된 183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4백만 점 이상의 교회 문건들이 소장될 것이다.

교회 역사 박물관 고객 지원부 책임자인 크리스틴 콕스는 교회 역사를 보존하고 회원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믿는다. 교회의 역사가 “회원들이 신앙을 키우고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녀는 “우리의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교회 자료들을 가능한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 훌륭한 문서 보관 시설을 구축”하는 동시에, “교회 회원들의 삶을 축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5층으로 된 이 건물에는 27만 점의 책, 소책자, 잡지, 교재, 및 신문; 미 출판된 24만 점의 일지 원본, 일기, 서류, 원고 및 지역 교회 단위 조직 역사; 1만3천 점의 역사적인 교회 사진, 포스터 및 지도; 2만3천 점의 시청각 녹음 자료 및 마이크로필름; 370만 점의 축복사의 축복문이 소장될 예정이다.

도서관에는 리아호나 과월호에서부터 모노폴리(Mormonopolis)라는 보드게임, 1844년을 기점으로 한 브리검 영의 일지, 교리와 성약에 언급된 세 명의 여성 가운데 한 명인 비에나 잭스에게 조셉 스미스가 직접 건넨 물문경 초판, 조셉 스미스 기록 모음집에 이르기까지 많은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다.

필요성의 고조

교회 역사 도서관에는 오랜 시간 새로운 건물의



교회 역사 도서관(가운데에 위치한 건물)은 방문자들이 솔트레이크 성전을 바라보며 기록을 보존하는 것과 성약을 맺고 지키는 것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상기해 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필요성이 대두되어왔다. 거의 40년 동안, 도서관의 문서들이 교회 본부 건물 동편에 보관되었다. 그러나, 교회 본부 건물은 기록 보관을 위해 설계된 곳이 아니었으므로 이 건물에는 지진과 화재로부터 기록들을 보호하거나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장치가 없었다.

그뿐 아니라 교회 역사 도서관에는 약 6,00여 점의 기존 출판물 이외에도 새로이 보관을 요하는 500에서 700건의 문서가 매년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과 교회 봉사 선교사 및 소장품들을 위한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었다.

교회는 2005년 4월 20일에 교회 역사 도서관 신축 계획을 발표했고 2005년 10월 11일에 기공식을 가졌다.

최첨단 기술을 갖춘 건물

교회 역사부의 전문가와 이 건물을 설계한 회사는 교회의 필요사항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들기 위해 기록 보존 및 문서 보관소 설계에 관한 국제적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새로운 건물은 무선 인터넷, 대중에게 개방될 일반 자료 및 특별 자료 열람실, 14개의 보관실 및 1개의 기록 보존실을 갖추고 있다.

설계사는 지진이나 화재로부터 보호되고 온도, 습도 및 조명 조절 장치가 있는 기록 보관실을 설계했다.

14개의 주요 보관실 중 12개는 섭씨 13도, 상대습도 35 퍼센트가 유지된다. 칼라 영화 필름, 사진, 및 각별히 중요한 기록들은 다른 2개의 보관실에서 섭씨 영하 20도, 상대습도 30 퍼센트로 관리된다.

각각의 기록 보관실들은 모두 연결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으며, 화재 발생시 교회 기록들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구역을 강화 콘크리트 벽이 둘러싸고 있다. 섭씨 13도로 유지되는 보관실에는 자동 화재 진압 스프링클러와 대기에서 지속적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연기 및 열 탐지기가 설치되어 있다. 섭씨 영하 20도로 된 보관실에는 화재 발생시 가치 있는 기록들이 손상되기 전에 화재를 즉시 진압하도록 산소 억제 장치를 설치해 두었다.

도서관 전반을 관리하는 교회 역사 프로젝트 관리자 케빈 닐슨은 새로운 도서관이 소장하게 될 수많은 문서들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각각의 문서 보관실에는 평균 106 cm 넓이의 선반 40,048개가 있다.

건물은 잘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LEED, 에너지 환경 디자인 리더십) 표준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지어졌다. 건물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블라인드를 이용해 건물의 온도 조절을 도우며, 재생 가능한 물질을

이용하도록 설계되었다.

교회 역사부 기록 보관 책임자인 브렌트 탐슨은 환경 문제를 민감하게 고려함으로써 “우리 도서관은 LEED 인증을 받는 것 이상의 기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콕스 자매는 건물의 설계에 많은 고민과 지혜가 녹아 있으며 “우리는 문서 보관을 위한 최첨단 기술을 갖춘 건물을 갖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도서관

이 도서관은 두 가지 영역, 즉 개방용 서고와 보존용 서고로 분리되어 있다. 일반인들은 이 두 서고에 있는 모든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개방용 서고에 있는 문서들은 도서관의 공공 장소에 있으며, 기록 보존용 서고에 있는 문서들은 방문자의 요청에 따라 직원들이 가져와 열람하게 해 준다.

도서관은 무료로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다. 하지만 기록 보관용 시설이라는 이곳의 특성상, 보관실에 있는 자료를 요청하려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필요하다.

“우리는 도서관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우리가 사람들의 출입과 시설물 사용을 반긴다는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 노력합니다.”라고 콕스 자매는 말한다.

목적적 가진 설계 방식

교회 역사 도서관은 교회가 왜 기록을 보존하는지를 보다 잘 설명해주기 위한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본관 로비에는 구약, 신약, 몰몬경, 그리고 오늘날의 경륜의 시대를 나타내는 하와이 라이에 성전에 있는 부조들의 모사품이 있다. 이 조각들은 기록 보관이 각 경륜의 시대마다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닐슨 형제는 방문자들이 각

경륜의 시대의 기록 보관 모습을 살펴 본 후, 도서관에서 오늘날의 경륜의 시대의 기록들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조각들을 그곳에 배치했다고 말했다.

본관 입구와 창문으로 둘러싸인 본관 로비에서는 솔트레이크 성전이 한 눈에 보인다. 낡은 형제에 따르면, 건물의 위치는 방문자들에게 기록 보관과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는 것의

중요한 관계를 알리기 위해 선정되었다고 한다. ■

주

1. LEED는 건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재생 가능한 자원을 이용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는 인증 프로그램이다.

홍역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구호 단체들

이 질병과 맞서 싸우고 있는 보건 및 구호 단체들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07년 사이 홍역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74퍼센트 감소했다고 한다. 사망자 수는 2000년 75만 명에서 2007년 19만 7천 명으로 줄어들었다. 홍역 사망자가 이와 같이 현저히 감소한 것은 광범위한 예방 접종을 실시한 결과이다.

The Measles Initiative(홍역 프로젝트)는 수백만의 생명을 구한 예방 접종 사업의 일환이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적십자사, United Nations Foundation(유엔 재단),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미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유니세프, 그리고 세계 보건 기구가 주도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도 그들과 공조하고 있다.

교회의 감리 감독인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은 “헌신적인 개인들이 관대하게 기부한 물질과 시간이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교회는 홍역 퇴치에 동참한 모든 단체들이 기울여온 그동인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며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라고 말했다.

교회는 2003년에 처음으로 홍역 캠페인에 참여했다. 54,784명의 후기 성도 자원 봉사자들과 함께, 교회는 28개국의 홍역 캠페인에 기여했다. 교회 복지 서비스에 따르면, 총 189,261,349명의 어린이들이 교회 회원들이 참여한 캠페인에서 예방 접종을 받았다고 한다. 교회는 이 사업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홍역 예방 접종을 받고 있는 아프리카 소년

교회 복지 서비스의 게리 플레이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재정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캠페인을 돕기 위해 수많은 교회 회원들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유엔의 목표는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홍역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90퍼센트로 낮추는 것이다. 교회는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계속해서 그들과 공조할 것이다. ■

연차 대회 CD 및 DVD, 스페인어로 출시돼

스페인어 연차 대회 실황 CD 및 DVD가 출시되었다. 오디오 및 비디오 판 모두에 음악과 말씀을 포함한 대회의 전 과정이 실려있다.

“연차 대회가 끝나고 4~5개월이 지나 사람들이 이미 다음 대회를 준비하는 시기에 지난 대회의 자료와 제품들을 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제품을 출시해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경전 협의 책임자인 릭 제스가 말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연차 대회의 새로운 제품 중 영어 오디오 CD의 수요가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연차 대회

CD를 영어로만 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회원들의 수요가 충분하거나 충분해지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제품들은 연차 대회 후 8주 이내에 출시될 수 있도록 계획된다. 제스 형제는 일부 지역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매 가능한 지역을 알아보려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배부 센터에 문의한다.

2009년 4월 연차 대회 스페인어 CD의 물품 번호는 08315 002(영어 08315 000), 스페인어 DVD는 08316 002(영어 08316 000)이다.

이 새로운 오디오 CD들과 더불어,

연차 대회는

General Conference LDS에서 70개 이상의 언어로 된 음성 파일로 청취할 수 있다. 또한 이 웹사이트에는 30개 언어로 된 연차 대회 말씀 원문이 있으며 미국 수화, 영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된 영상 자료가 있다.

제스 형제는 “우리의 목적은 선지자의 말씀이 모든 회원들의 정신과 마음에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료들이 살아계신 선지자의 말씀에 대한 회원들의 개인 및 가족 공부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오키 마운틴 성전

유 타 주 오키 마운틴 성전이 2009년 6월 1일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무료 일반 공개는 2009년 8월 1일까지 계속될 것이며 참여하려면 예약을 해야 한다. 열두 차례의 헌납식 모임이 2009년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지역 신권 지도자들이 헌납식 입장권을 배부할 것이다. 정규 성전 의식은 2009년 8월 17일부터 시작된다. 이 성전은 세계적으로는 130번째, 유타에서는 13번째로 운영되는 성전이다.



유타 주 오키 마운틴 성전

제일회장단, 페루에 새로운 성전을 발표해

페 루 트루히요에 세워질 새로운 성전이 전 세계적으로 발표되거나 운영 중인 146번째, 그리고 남미의 17번째 성전이 될 것이다. 다른 두 개의 성전도 남미 브라질의 마나우스와 아르헨티나의 코르도바에 세워지고 있다. 페루 트루히요 성전은 트루히요 시 우르바니자시온 프리마베라의 발 카르셀 거리에 있는 현 집회소 부지에 세워질 예정이다. 88,000명 이상의 회원들이 이 성전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

호주에서 발생한 맹렬한 산불에 대응한 교회

1월 과 2월에, 거대한 산불이 강풍과 지독한 가뭄을 타고 호주 남부로 번져서 최소한 200명이 사망하고 80여구 이상이 파괴되었으며, 수천 헥타르에 해당하는 초목이 불탔다. 파괴된 가옥

가운데에는 회원 가족 세 가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번 산불은 호주 역사상 최악의 자연 재해로 불린다. 그러나 경찰은 몇몇 산불은 방화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은 시골 마을 전체를 파괴했다. 빅토리아에 있는 몇몇 지역들은 여전히 위험에 처해있으며, 30여 개의 불길 아직까지 타고르고 있다. 재해 작업반이 불길이 지나간 재해 지역으로 들어갈수록, 발견되는 총 사망자 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는 화재 안전 대책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지독한 고온과 가뭄, 극도로 건조해진 삼림 및 계속해서 산불의 진로를 바꿔 놓은 빠른 속도의 바람이 산불의 강도를 높이고 많은 주민들을 놀라게 한 것으로 보인다.

회원과 선교사들은 모두 무사했다. 가옥이 파괴된 한 회원은 심장 질환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했다. 화재로 인한 교회 건물의 피해는 없었다.

교회는 호주 적십자 재해 기금에 성금을 냈고 많은 회원들은 비상 대피소나 복구 작업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로 나섰다.

호주에는 매년 산불이 발생한다. 과거에 호주에서 발생한 최악의 산불은 오늘날 재의 수요일이라 불리는 1989년 2월에 있었던 산불로, 75명이 사망했다. ■

홍수가 발생한 지역의 복구를 돕는 호주 성도들

산 불이 대륙의 한쪽 편을 불태우는 동안, 호주 북부에 위치한 퀸즈랜드 주에서는 폭우로 인한 홍수가 발생했다. 홍수로 3,000여구 이상이 피해를 입고 수백 명이 비상 대피소로 피신했다.

퀸즈랜드 북동부 해변 인근 마을인 잉햄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대략



사진출처: © AP Photo/ALB, Cheryl S. W. AP/IN

2009년 2월, 산불이 호주 멜버른 외곽의 마을 주변을 태우고 있다.

2,90여 가구가 침수되었다.

홍수를 야기한 폭풍우는 2008년 12월에 시작되어 2009년 2월까지 계속되었다. 2009년 2월 초에 수위가

낮아졌지만, 관리들은 그 달 내내 폭우가 다시 쏟아져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 전망했다. 장마철 기간 동안, 호주의 이 지역에는 늘 맹렬한 폭우가 쏟아진다.

모든 선교사와 교회 회원들은 안전했고 회원들의 가옥이나 교회 건물 역시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회원들은 복구 작업에 참여했다. ■

교회, 피지에서 발생한 홍수에 개입해

2009년 1월 중순, 피지의 본토인 비티레부 서쪽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홍수와 잇따라 발생한 산사태로 인해 최소 8명이 사망했다.

범람한 물은 나디, 라키라키 및 바 지역을 뒤덮었고, 여러 회원 가족들을 비롯한 9,000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118개 비상 대피소로 피신했다. 회원과 선교사들은 안전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홍수가 진정된 후, 회원들은 청소 및 복구 작업에 참여했다.

태평양 지역의 지역 복지 전문가인 존

라스 장로는 “교회는 정부 구제 기관인 DISMA와 협력하여 비상 대피소에 있는 개인 및 가족들에게 제공될 식량과 물과 의복을 지원했습니다. 지역 스테이크들 역시 식량과 의복을 지원하여 자신들이 소속된 지역에 전달될 수 있게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홍수로 인해 바에 있는 한 집회소는 건물 외벽만 남은 채 파괴되었다. 사람들은 나디에 있는 집회소를 임시 대피소로 사용했다. ■



사진 촬영: 린 보스웰

피지에서 발생한 홍수 및 산사태로 인해 가족들이 파손되고 9,000명 이상이 대피소로 피신했다.

극심한 우빙성 폭풍우, 교회의 즉각적인 원조를 불러내

서부 평야에서 동부 해안까지 휩쓴 극심한 우빙성 폭풍우로 인해 미국 전역에서 최소 4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들 중 30명이 켄터키 주에서 사망했다. 많은 회원들의 가옥이 피해를 입었으나 폭풍우로 인해 사망한 회원이나 선교사는 없었다.

켄터키 주는 101개 군과 75개 시에 비상 사태를 선포했다. 켄터키 주만 하더라도 복구 비용이 4,500만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1월 27일에 시작된 우빙성 폭풍우로 130만 명이 정전의 불편을 겪었으며 6,500명 이상이 피신했어야 했다. 켄터키 주 전역의 35,000 가구의 가정에는 2주 후에도 정전이 계속되었다.

지역의 신권 지도자들은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사정하고 교회의 지원을 이행하기 위해 지역 사회 및 주 공무원들과 협력했다. 텍사스 주

캐럴턴,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폴리스, 루이지애나 주 슬리델, 그리고 조지아 주 터커에 있는 감독의 창고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트럭 몇 대 분량의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교회는 담요, 위생 용품 세트, 간이 침대, 물, 식량 및 기타 물품을 켄터키 주에 소재한 몇몇 적십자 대피소에 제공했다. 절대적이고 특별한 필요

사항을 가진 회원들과 사람들에게는 발전기가 제공되었다. 교회는 자원 봉사자들의 복구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톱과 기타 물품들을 전달했다.

1,350명 이상의 교회 회원들이 폭풍 발생 후 재해 복구를 돕기 위해 주말에 일했다. 그들이 봉사한 총 시간은 16,000시간 이상이다. ■



사진 촬영: © AP Photo/The Baylor Bulletin, Kevin Hopper

미국 아칸소 주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얼음으로 뒤덮인 전신주. 얼음과 눈으로 인해 광범위한 지역이 정전되었다.

미국의 홍수 구제에 뜻을 함께하는 회원들

2009년 1월 초, 미국 워싱턴 주 서부에서 역사적인 홍수가 발생한 후, 회원들과 선교사들은 재해 복구를 도왔다. 범람한 물로 인해 100가구 이상이 파괴되었고, 2,000여 가구 이상이 타격을 입었으며, 두 개의 주요 고속도로가 일시적으로 폐쇄되었다. 그러나 심각한 부상자나 사망자는 없었다.

높은 수위로 인해 한 회원의 가옥이 파괴되었고, 몇몇 다른 회원들의 집이 침수되었다.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회 건물은 없었다.

홍수로 인해 두 개의 주요 고속도로인 I-5와 I-90이 침수되었다. 수위가 낮아질 때까지 고속도로는 계속 폐쇄되었다.

워싱턴 주 서부에 위치한 열다섯 개 군이 재해 지역으로 선포되었다. 셀라, 롱뷰 및 센트렐리아 워싱턴 스테이크의 교회 회원들은 지역 사회의 재해 복구 작업반에 동참했다. 선교사들은 모래자루를 쌓는 일과 침수 지역 복구를 도왔다. ■

사태가 발생했다. 대피 명령은 없었으나 몇몇 학교들은 휴교했다. 교회 회원 및 선교사들은 무사했다.

브리검 영 대학교 하와이 캠퍼스 직원들은 학교가 홍수로 인해 입은 피해액을 약 150만 달러로 추정했다. 일반 강의동, 사회 과학동, 기혼자 기숙사 36채 등, 몇몇 건물들이 침수되었다.

폴리네시안 문화센터 입구의 건물과 교내에 있는 기타 몇몇 건물 역시 피해를 입었다.

성전과 교회 집회소는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성전 방문자 센터에는 약간의 피해가 있었다.

교회 회원들은 적십자사와 협력하여 홍수로 이재민이 된 사람들을 위해 비와이유 하와이 캠퍼스에 피난처 및 식량을 제공했다. 학생들과 교회 회원들은 홍수 후에 복구를 도왔다. ■

비와이유 하와이 캠퍼스 홍수로 피해 입어

2008년 12월 11일, 미국 하와이 주 오아후 섬에 내린 홍수로 인해 라이에, 와이아나에 및 밀라라니에 있

는 가옥과 교회 소유의 몇몇 건물들이 피해를 입었다. 대략 네 시간 동안 30센티미터 가량의 비가 내려 주 도로들이 폐쇄되고 돌

세계 단신

온라인에 새로 추가된 세 가지 언어의 몰몬경 합본

이제 LDS.org에 핀란드어, 노르웨이어 및 스웨덴어로 된 몰몬경 합본이 추가되었다. 교회는 몰몬경 합본을 38개 국어로 간행했으며, 현재, 이중 12개 언어(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핀란드어, 헝가리어)를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경전에 접속하려면 scripture.lds.org간 다음, 우측 상단에서 자신의 언어를 선택한다.

솔트레이크 태버네클에서 열린 음악회에 참석한 종교 단체들

2009년 2월 9일, 유대교, 이슬람교, 천주교, 불교, 그리스 정교 및 힌두교를 포함한 15개 이상의 종교 단체들이 자신들의 공통된 믿음을 나누기 위해 교회가 솔트레이크 템플 스퀘어 태버네클에서 주최한 종파를 초월한 음악의 헌정 기간에 참여했다. 이 음악회는 Salt Lake Interfaith Roundtable(솔트레이크 종파간 간담회) 주최로 열린 제7차 연례 종파 초월 축하행사의 일환이었으며 일주일간 계속되었다.

후기 성도 실업 대학에 새로운 총장 임명돼

존 엘(래리) 리처드가 후기 성도 실업 대학의 새로운 총장으로 선임되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후기 성도 실업 대학 이사진을 대표하여 이를 발표했다. 전임 총장인 우드하우스 형제는 1989년부터 학교 임직원으로 봉사했고 1992년부터 총장으로 봉사했으며, 리처드 형제는 이제 총장으로서 은퇴하는 우드하우스 형제를 대신하게 되었다. ■



2009년 6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안



다음은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2009년
6월호 리아호나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안이다. 이러한 제안에 해당하는 공과와 유의 사항 및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호 친구들의 친14쪽과 친15쪽에 있는 “행복의 기초”를 참조한다.

1.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한 어린이의 두 발목을 줄로 느슨하게 묶고, 그 아이가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도록 도와준다. 그에게 뛰어 오르지 않고 발판 위에 올라서 보라고 한다. 줄이 그가 발판 위로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처럼, 죄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을 향해 발전해 나가는 것을 방해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통해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줄을 풀고 어린이가 발판 위로 올라서게 한다. 회개는 줄을 없애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한다. 회개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이나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해주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도록 발전할 수 있게 해준다. “불친절한 자”(어린이 노래책, 52쪽) 2절을 함께 부르며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기 위해 하는 일들에 귀 기울여 보라고 한다. 어린이들의 대답을 듣는다. (“옳은 일하고 회개할 마음 갖기”) 회개 하는 것과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리아호나 또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준다. 제3니파이 9장 22절을 함께 읽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통해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 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간증한다.

2. 내가 용서할 때, 용서받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비교적 무거운 돌들에 다음 단어들을 붙인 다음 큰 쇼핑 백이나 가방에 돌들을 담아둔다. 분노, 상처 입음, 적개심, 복수, 미워함. “불친절한 자”(어린이 노래책, 52쪽) 1절을 부르며 함께 나누는 시간을 시작한다. 어린이 몇 명에게 차례로 돌이 담긴 쇼핑 백을 들어보게 한다. 무거운 돌들을 들어보니 어떤 느낌이었는지 질문한다. 각각의 돌들을 꺼내면서 각

낱말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런 감정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은 무거운 돌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것과 같다고 설명한다. 용서라는 낱말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 공과반 여기 저기에 붙여놓는다. 어린이들에게 각각의 조각을 찾은 뒤 용서라는 단어를 맞추게 한다.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14절을 읽고, 그 의미를 토론한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마태복음 18:23~35 참조)를 읽은 뒤 역할극을 한다. 어린이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받으려면,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기도로 도움을 구하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설명한다. “불친절한 자” 1절을 다시 부른다.

3. 노래 발표. “나 어릴 때 주님을 찾으리”(어린이 노래책, 67쪽). 8개의 낱말 카드에 다음 단어들을 하나씩 적는다: 어릴 때, 진리, 경전, 기도, 순종, 말씀, 사랑 받고, 보이시리. 그 낱말들을 무작위로 칠판에 붙인다. 어린이들에게 첫 소절을 불러준다. 해당되는 낱말을 칠판에 붙인다. 첫 소절을 함께 부른다. 마지막 소절까지 같은 방법으로 반복한다. 노래의 의미에 부합하는 그림들을 나열한다. 그림의 예에는 복음 그림 패킷 605(기도하는 소년), 617(경전 연구), 618(“나의 복음 표준”) 및 토마스 에스 몬슨(리아호나, 2008년 4월호, 친 4쪽) 등이 있다. 각 소절을 부르면서, 한 아이에게 그 부분과 어울리는 그림(혹은 그림들)을 고르게 한다. 모든 그림을 선택하면, 그림을 가진 어린이들에게 공과반 앞쪽으로 나와서 해당 소절을 부를 때 자신의 그림을 높이 들어올리라고 한다. 전곡을 함께 부른다. ■